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3

1

[1~3] 다음은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엇그제 우리 고장의 축제인 ‘밤고을 축제’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를 관람한 인원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해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큼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고장 축제’라는 주제로 축제 위원장이신 이○○ 위원장님, 축제 전문가인 한국 대학교 배○○ 교수님, 주민 대표인 지역 발전 협의회 김○○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토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교수: ‘밤고을 축제’의 방문객 중 가족 단위의 비율이 36.9%로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축제 만족도 조사 23가지 항목 중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20위였습니다. 이는 축제에서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장 축제의 성격을 특색 없는 지역 특산물 중심의 먹거리 축제가 아니라 우리 고장의 읍성을 활용한 체험 중심의 역사 축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 사무국장: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축제 방문객의 1인당 소비 지출 효과가 큰 축제는 먹거리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밤고을 축제’도 먹거리 축제로 운영되면서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경제적 효과가 확실한 역사 체험 축제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배 교수: 이번 축제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재방문 의사를 물어봤을 때, 거주지가 우리 고장인 방문객의 50.2%, 거주지가 타 지역인 방문객의 38.0%만이 재방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음을 말해 줍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험형 지역 축제는 지역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주고 지역 축제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보면 역사 체험 축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위원장: 하지만 축제 준비를 위한 인력과 자금이 지금도 부족한 실정에서 축제의 성격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더욱이 올해 축제의 성과가 예년만 못한 상황에서 축제 예산을 늘리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큼니다.

김 사무국장: 그렇다면 축제 준비와 진행에 지역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축제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축제 진행 시에는 주민들을 자원 봉사자로 활용한다면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축제 지출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 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1년 만에 축제의 성격을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먹거리 프로그램과 역사 체험 프로그램 일부를 병행하면서 축제의 성과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사회자: 지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잠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을 제안하실 방청객께서는 손을 들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토의 참여자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1)
- ① 배 교수는 조사한 자료를 활용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이 위원장은 토의 참여자의 발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③ 사회자는 토의를 하게 된 배경을 생략한 채 바로 진행을 시작하고 있다.
- ④ 김 사무국장은 상대방이 인용한 자료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⑤ 김 사무국장은 상대방의 발언을 듣고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며 논의를 심화하고 있다.

- 2. <보기>를 참고하여 토의를 들은 방청객이 질문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

〈 보 기 〉
토의를 들은 방청객은 토의 참여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이때 방청객은 질문을 받게 될 토의 참여자가 토의 주제에 대해 취하는 입장, 토의 참여자가 말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질문의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 ① 이 위원장님, 왜 올해 축제가 잘 끝났다고 생각하셨나요?
- ② 이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고장 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③ 배 교수님, 말씀하신 역사 체험 축제 말고 문제 해결의 다른 대안은 없으신가요?
- ④ 김 사무국장님, 그동안 이 축제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⑤ 김 사무국장님, 축제 방문객의 1인당 소비 지출이 가장 큰 축제가 먹거리 축제라는 말씀의 근거 자료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3. <보기>를 참고하여 학생들이 위 토의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³⁾

〈 보 기 〉

토의의 주제는 시의성, 가치성, 접근성을 가져야 한다. 시의성이란 토의 주제가 당시 사정에 알맞은 현실의 문제를 다루어야 함을 뜻하고, 가치성은 그것이 공적인 성격을 띠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접근성은 다양한 의견 접근이 가능한 사안이 토의 주제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 보통 자신 주변의 논의거리를 논제로 삼아야만 토의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토의 주제는 토론과는 달리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조화롭게 해결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토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의 주제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때 토의 주제는 명사구나 평서문보다는 의문문 형식으로 진술해야 토의 주제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고 토의의 방향을 잘 드러낼 수 있다.

- ① 주현: 최근에 끝난 ‘밤고을 축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의이므로 토의의 주제는 시의적절한 것 같다.
- ② 수정: ‘밤고을 축제’의 참여 인원이 줄고 있는 상황은 지역의 공공 사안이므로 토의 주제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 ③ 의택: 우리 고장의 지역 축제를 토의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토의의 접근성은 높다고 생각해.
- ④ 보현: 토의에서 다루는 우리 고장의 지역 축제 문제는 지역 주민 대표의 의견 위주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토의 주제인 것 같다.
- ⑤ 태완: 토의의 방향과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고장 축제’보다는 ‘우리 고장 축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처럼 의문문 형식으로 진술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4~5] 다음은 이모와 조카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선아: 이모,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이모: ㉠선아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시간을 낼 수 있지. 근래, 어쩔 일이지?

선아: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요. 요즘 전 친구들과의 소통 문제로 고민이 많아요.

이모: (놀라며) 네가? 선아 너는 밝고 쾌활해서 친구들과하고 잘 지내지 않았었니?

선아: 예전엔 그랬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저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이모: ㉡(되뇌듯) 자신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

선아: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요. 전 제 이야기를 터놓을 친구를 만들고 싶은데, 그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 무슨 말부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모: ㉢음, 미안하지만 잘 이해가 되질 않는구나. 좀 더 구체

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선아: 예전엔 마음에 맞는 친구이다 싶어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속 깊은 이야기까지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를 점점 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이모: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혹시 그 친구들이 네게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니?

선아: 아니요. 음, 그러고 보니 그 친구들은 중학교 때 친구들과과는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던데, 그 친구들이 속 깊은 이야기를 제게 털어놓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모, 그런데 그건 왜요?

이모: 응. ㉤이모 생각엔 그 친구들이 조금은 부담스러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네가 만났던 친구들은 아직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준비가 덜 되었을 수 있어.

선아: 그런가요?

이모: 대개 친구를 사귀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음속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기는 쉽지 않은 법이란다.

선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친해지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모: (㉦)

선아: 아, 그렇겠네요. 이모, 고마워요.

4.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⁴⁾

- ① ㉠: 상대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드러내어 대화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 ② ㉡: 상대의 발언 내용 중 일부를 반복하면서 상대의 말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반문을 통해 상대가 한 말의 의도를 자신이 제대로 파악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 ④ ㉣: 상대의 말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 ⑤ ㉤: 상대가 건넨 말들을 통해 판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대화 내용과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⁵⁾

〈 보 기 〉

자기 노출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스스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절한 자기 노출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의사소통의 양적·질적 측면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준다. 하지만 성급하거나 지나친 자기 노출의 결과, 의사소통은 물론이려니와 관계 자체가 손상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 ①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적극적으로 네 속마음을 드러내 주어야 해. 그래야 상대방도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어서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거야.
- ② 네 이야기만 강요하는 태도는 상대방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깊이 있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구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 ③ 마음속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친구 관계가 돈독해질 것이라고 기대해선 안 돼. 어떤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
- ④ 만난 지 얼마 안 돼 아직 서먹서먹할 때는 속마음을 꺼내는 것이 서로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 마음속 깊은 이야기는 관계가 좀 더 친밀해졌을 때 꺼내는 것이 바람직해.
- ⑤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해야 해. 네가 네 자신과 네 감정을 잘 이해하고 행동해야 상대방도 너에게 호감을 갖고 너와 친해질 수 있을 거야.

[6~7] 다음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논설문을 교지에 신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개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주제문: SNS에서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I. 서론 ㉠

II. 본론

1. 1인 미디어의 발달 과정 ㉡

2. SNS에서의 인권 침해 유형

가. 사생활 침해 ㉢

나. 허위 사실의 유포

다. 언어 폭력

3. SNS에서의 인권 침해 발생 원인

가. ID 도용, 해킹 등을 통한 개인 정보의 유출

나. 명예 훼손으로 인한 법적 처벌의 증가 ㉣

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의식 부족

4. SNS에서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가. 개인 정보를 인권으로 바라보는 태도의 확립

나. 정보 제공자로서의 책임 의식 강화

다. 한글 맞춤법 교육의 강화 ㉤

III. 결론: SNS에서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려는 적극적 태도의 요구

6. 글을 작성하기 전 개요를 수정·보완할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6)

- ① ㉠은 'III'의 제시 방법을 고려하여 'I. 서론: SNS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으로 구체화한다.
- ② ㉢은 글의 중심 화제인 'SNS에서의 인권 침해'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 ③ ㉣은 'II-3-가'의 내용을 고려하여 '불법·유해 정보의 상업

적 유통'으로 바꾼다.

- ④ ㉡은 상위 항목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의 무분별한 전파'로 바꾼다.
- ⑤ ㉤은 상위 항목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의 확립'으로 바꾼다.

7. <보기>의 (가)와 (나)에 제시된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개요의 'II-4-나'에 해당하는 글을 작성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7)

< 보 기 >

(가) 신문 기사

SNS를 사용하는 손 안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들어 있다. SNS에서는 몇 번의 손가락 조작만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도 그 메시지가 퍼지는 특성이 있다.

(나) SNS 사용 지침(일부)

1		
3	허위 사실 유포 금지	* SNS에 글을 올릴 때에는 게시하기 전에 허위 사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정독하고 게시할 것. * SNS에서 정보를 얻을 때, 사실과 허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

- ① SNS에서는 허위 사실도 급속히 퍼질 수 있는 속성이 있으므로 SNS 이용자는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글을 올리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 ② SNS에 글을 쓰는 행위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잠재적 가해자가 되는 길이므로 SNS 이용자는 SNS에 글을 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SNS는 그 조작의 편리함 때문에 거짓 정보가 실시간으로 퍼질 수 있으므로 SNS 이용자는 정보 통신 윤리 교육을 이수하는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 ④ SNS에 올리는 허위 사실은 법적 처벌의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SNS 이용자는 관련 법규를 인지하여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⑤ SNS에서 얻는 정보는 사실과 허위가 구분되지 않으므로 SNS 이용자는 SNS에 그 정보를 올려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8. <보기>에서 계획한 내용 중, 답사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8)

〈 보기 〉

졸업식 답사? 선생님의 축사와 후배들의 송사 다음에 내가 낭독을 하니까 ㉠아무래도 글의 처음 부분에서 선생님과 후배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게 좋겠지. 중간 부분에서는 먼저 ㉡내 경험을 토대로 학교생활에서 배웠던 점을 드러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생활에 대한 포부를 밝혀야지. 이 순서로 내용을 구성하면 되겠지. 아! 글의 내용이 무미건조하지 않게 ㉣비유법을 활용해서 표현해야지. 그리고 ㉤답사의 끝 부분에는 후배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넣으면서 마무리하면 되겠지. 이제 어느 정도 글쓰기 계획이 세워졌으니 한번 답사를 써 볼까?

(답사)

안녕하십니까? 이번 졸업식에서 학생 대표로 졸업식 답사를 하게 된 ○○?입니다. 우선, 저희들을 위해 축화와 격려의 말씀을 보내 주신 선생님들과 후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척이나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저의 고등학교 생활을 떠올려 봅니다. 돌이켜 보면, 저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늘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학교의 교육 활동 대부분이 '나'가 아닌 '우리'를 강조했고, 이를 통해 이기적이었던 제 자신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가르침을 새롭게 시작할 사회생활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학교 교표에 그려져 있는 푸른 소나무처럼 그 어떤 시련도 이겨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아가 제 자신이 누군가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한 그루 푸른 소나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제 말씀을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문 과제)

'칭찬의 힘'에 대한 글을 써 보자.

(과제의 초고)

'난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오늘도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네.' 이처럼 평소 우리들은 잘한 일보다는 잘못된 일들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곤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새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차지하여 습관적으로 자신을 비난하거나 질책하기 쉽다. 지속적인 비난과 질책은 심리적인 불안을 초래하고, 불안은 짜증이나 신경질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칭찬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1분 칭찬하기'를 권한다. ㉡칭찬은 사람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준다. '1분 칭찬하기'란 거울을 보면서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 내가 자랑스러워.', '나는 내가 마음에 들어.'와 같이 자신을 칭찬하거나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북돋울 수 있는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일로 자신을 비난하거나 미워하기보다는 작은 성과라도 칭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1분 칭찬하기'를 통해 올바른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다고 본다.

칭찬을 통해 자아상을 확립한 사람은 상대방도 진심으로 칭찬해 줄 수 있다. 자신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은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이를 칭찬하게 되는 것이다. ㉤때때로 어떤 칭찬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칭찬이 나쁜만 아니라 상대방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9. '과제의 초고'에서 글쓴이가 활용한 글쓰기 방법만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9)

〈 보기 〉

- ㄱ. 화제를 친숙한 대상에 비유하며 글을 시작한다.
 ㄴ. 일상적 사례를 들어 글을 시작하여 화제를 이끌어낸다.
 ㄷ.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설명한다.
 ㄹ. 분석적 방법으로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며 내용을 전개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0)

- ① ㉠은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으므로 '어느새'로 고쳐 쓴다.
 ② ㉡은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바로 앞의 문장과 순서를 바꾼다.
 ③ ㉢은 사동 표현이 잘못 사용되었으므로 '듣는'으로 고쳐 쓴다.
 ④ ㉣은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로 고쳐 쓴다.
 ⑤ ㉤은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11. <보기>를 참조하여 자음의 발음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1)

< 보 기 >

* 표준 발음법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人, ㅈ, ㅊ, ㅌ, ㅍ, ㅎ), ㅂ(ㅃ, ㅍ, ㅍ, ㅍ)’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 표준 발음법 제19항
받침 ‘ㄹ, ㅇ’ 뒤에 연결되는 ‘ㄷ’은 [ㄴ]으로 발음한다. (붙임) 받침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ㄷ’도 [ㄴ]으로 발음한다.

* 표준 발음법 제20항
‘ㄴ’은 ‘ㄷ’의 앞이나 뒤에서 [ㄴ]로 발음한다.

- ① 표준 발음법 제18항에 따라 ‘밥물’은 [밤물]로 발음한다.
- ② 표준 발음법 제18항, 제19항에 따라 ‘등록만’은 [등농만]으로 발음한다.
- ③ 표준 발음법 제19항에 따라 ‘침략’은 [침낙]으로 발음한다.
- ④ 표준 발음법 제18항, 제19항 [붙임]에 따라 ‘식류’는 [식뉴]로 발음한다.
- ⑤ 표준 발음법 제20항에 따라 ‘물난리’는 [물랄리]로 발음한다.

12. <보기 1>의 설명을 참고하여 <보기 2>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2)

< 보 기 1 >

문장 성분으로서 부사어가 성립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부사가 부사어가 되는 경우,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 부사어가 되는 경우, 용언의 활용형이 부사어가 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보통 부사어는 용언을 꾸미지만 관형사, 체언,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미는 기능도 하기도 한다.

< 보 기 2 >

ㄱ. 그의 차는 아주 새 차였다.
 ㄴ. 그는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했다.
 ㄷ. 그는 눈을 감은 채로 그때 일을 회상했다.
 ㄹ. 정화는 정운에게 편지를 보냈다.
 ㅁ. 진달래가 곱게 피었다.

- ① ㄱ의 밑줄 친 부분은 부사가 부사어로 성립된 경우이군.
- ② ㄴ의 밑줄 친 부분은 명사에 부사격 조사 ‘-로서’가 붙어 부사어가 성립된 경우로 볼 수 있군.
- ③ ㄷ의 밑줄 친 부분은 의존 명사 ‘채’에 부사격 조사 ‘-로’가 결합하여 부사어가 성립된 경우이군.
- ④ ㄹ의 밑줄 친 부분은 명사 ‘정운’에 부사격 조사 ‘-에게’가 결합하여 부사어가 성립된 경우로 체언인 ‘편지’를 꾸미고 있군.
- ⑤ ㅁ의 밑줄 친 부분은 용언의 어간 ‘곱-’에 어미 ‘-게’가 붙어 부사어가 성립된 경우로 동사인 ‘피었다’를 꾸미고 있군.

13. 다음의 탐구 과정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13)

자료	* 성민이가 결혼했다.	성민이가 결혼했다.
↓		
의문점	‘결혼했다’의 ‘-데’와 ‘결혼했다’의 ‘-대’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		
문제 탐구	자료에서 ‘-데’의 쓰임을 확인한다. → 문장의 종결 어미로 사용됨.	자료에서 ‘-대’의 쓰임을 확인한다. → 문장에서 ‘-다고 해’의 줄임말로 사용됨.
	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종결 어미 ‘-데’의 쓰임을 알아본다. * 어제 보니까 혜정이 참 예쁘데. * 곁에서 보니 참 훌륭한 신랑감이데. * 옆에서 봤는데 농구 선수가 키가 크긴 크데. → 종결 어미 ‘-데’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보고하듯이 말할 때 쓰인다.	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줄임말 ‘-대’의 쓰임을 알아본다. * 사람들 말로는 동회가 가장 예쁘대. * 신문 기사에서 내일 날씨가 춥대. * 정준이가 얘기하기로는 어제 유성우가 정말 멋있었대. → 줄임말로써 ‘-대’는 (㉠)
↓		
적용	‘같이 춤을 준 연아 말로는 병희가 춤을 잘 춘()’에는 ‘-다고 해’의 줄임말 ‘-대’가 들어간다.	

- ①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해 감탄하면서 말할 때 쓰인다.
- ②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해 평가하듯이 말할 때 쓰인다.
- ③ 화자가 청자의 반응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낼 때 쓰인다.
- ④ 화자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 막연한 의문을 나타낼 때 쓰인다.
- ⑤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인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자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4)

< 보 기 >

‘-았 / 었-’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이며, ‘-겠-’은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이다. 그러나 용례를 살펴보면, ‘-았 / 었-’과 ‘-겠-’은 여러 문맥에서 시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다.

	자료	설명
①	철수: 수박 하나 골라 줘. 영희: 이 수박이 잘 <u>익었어</u> .	‘-었-’이 상황이 완료되어 그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
②	철수: 숙제 못 했는데 어떡하지? 영희: 뭐야? 너 내일 학교 가면 <u>혼났다</u> .	‘-았-’이 미래 어느 시점에 실현될 것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
③	철수: 너희들 언제 왔어? 영희: 민희는 10분 전에 왔고, 난 방금 <u>왔어</u> .	‘-았-’이 발화시 이전에 상황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
④	(자료) 철수: 민수는 뭐해? 영희: 중간고사를 준비한다고 <u>공부하겠지</u> .	‘-겠-’이 현재 일어나는 사실을 추정하여 인식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
⑤	철수: 어디로 놀러 갈까? 영희: 네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u>따라가겠어</u> .	‘-겠-’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

15. <보기>는 국어사전에서 ‘나누다’를 찾아본 결과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¹⁵⁾

< 보 기 >

나누다 [나누어(나뉘), 나누니] 동

1 [... 을 ... 으로]

㉠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다.

¶ 사과를 세 조각으로 나누자.

㉡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을 구분하여 분류하다.

¶ 나는 이 물건들을 불량품과 정품으로 나누는 작업을 한다.

2 [...을 ...에/에게] 몫을 분배하다.

¶ 이익금을 모두에게 공정하게 나누어야 불만이 생기지 않는다.

3 [(... 과)... 을] [(‘...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 음식 따위를 함께 먹거나 갈라 먹다.

¶ 나는 그녀와 술을 한잔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 말이나 이야기, 인사 따위를 주고받다.

¶ 고향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언제나 즐겁다.

㉤ 즐거움이나 고통, 고생 따위를 함께하다.

¶ 고통은 주위 사람과 나누면 작아지고, 즐거움은 나누면 커진다고 한다.

- ① ‘[나누어(나뉘), 나누니]’의 ‘(나뉘)’는 때에 따라서 ‘나누다’가 불규칙 활용을 하기도 함을 나타낸다.
- ② ‘나누다’가 1의 ㉠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 ‘나누다’ 대신

‘분할하다’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나누다’ 2의 용례로 ‘사업장의 각 부서에 작업량을 나눌 때는 인부들의 숙련도를 고려해야 한다.’를 추가할 수 있다.
- ④ 1 [... 을 ... 으로], 2 [... 을 ... 에/에게]는 ‘나누다’가 세 자리 서술어임을 나타낸다.
- ⑤ 3의 ㉠, ㉡, ㉢은 [(... 과)... 을]의 통사 구조를 띠는 ‘나누다’가 의미상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16.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시기 국어의 표기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¹⁶⁾

< 보 기 >

글즈가 어딴 부터는지 비로소 알고 일그니 국문으로 쓴편지 혼장을 보자하면 한문으로 쓴것보다 더디 보고 쏘 그나마 국문을 자조 아니 쓰는 고로 서툴어서 잘못봄 이라 그러고로 정부에서 너리는 명령과 국가 문적을 한문으로만 쓴즉 한문못하는 인민은 나모 말만 듯고 무슴 명령인줄 알고 (후략)

-‘독립신문(1896)’

(현대어 풀이)

글자가 어디 붙었는지 비로소 알고 읽으니 국문으로 쓴 편지 한 장을 보자면 한문으로 쓴 것보다 오래 보고 또 그나마 국문을 자주 안 쓰니 서툴러서 잘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내리는 명령과 국가 문서를 한문으로만 쓰면 한문 못 하는 인민은 남의 말만 듣고 무슨 명령인 줄 알고 (후략)

- ① 글즈가를 통해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모음자가 표기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일그니를 통해 끊어 적기 표기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쓴것보다를 통해 띄어쓰기가 오늘날과 다른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쏘를 통해 현대 국어와 달리 초성에 ‘ㅅ’으로 시작하는 합용 병서 표기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듯고를 통해 현대 국어에서 받침으로 ‘ㄷ’이 와야 할 자리에 ‘ㅅ’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든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안고 살아간다. 그래서 개인들은 스스로 위험에 대비하려 하며, 시장은 이를 포착하여 알맞은 상품을 제공한다. 생명보험, 암보험 등의 각종 보험 상품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민간 보험 상품만으로 개인들이 위험에 완전히 대처했다고 할 수는 없다.

개인들은 자신의 소득을 현재의 욕구를 위한 소비와 미래의 욕구를 위한 저축으로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미래의 욕구보다는 현재의 욕구를 과대평가하는 본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또 행운의 확률을 과대평가하고 불행의 확률을 과소평가하는 불합리한 존재이다. 그래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기보다는 현재의 욕구를 위해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해 버리는 개인이 나타나게 된다. 이들은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대비책이 없어 무너지게 되고 이는 곧 사회적 문제가 된다. 그래서 국가는 사람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그 제도가 사회보험이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인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강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자신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본인의 총액소득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정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다. 그렇다고 해서 연금 지급액이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고소득자에게는 사회보험이 민간 보험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 또 같은 혜택을 받는 국민건강보험료도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처럼 사회보험에서 고소득자는 상대적 손실을 입게 되고 저소득자는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서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사회적 연대라는 사회보험의 성격이 잘 드러나고 강제성이 정당화될 수 있다.

사회보험은 보험시장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주장을 고용보험에 적용해 보면 타당성이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의 보험 상품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 대상 위험이 암이나 교통사고와 같이 상호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업은 외환 위기 때 경험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실업이 증가할수록 나의 실업 확률도 커지는 상호 의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민간 보험회사들은 고용보험상품을 제공하려 하지 않는다. 또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역시 국가가 추구하는 공익성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에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보험사에 맡길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은 국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는 개인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는 그 장치로서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1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7)

- ① 민간 보험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이 성립된다.
- ② 사회보험은 국민들에게 균일한 금전적 이익을 주는 보험이다.
- ③ 사람들이 불행의 확률을 과소평가하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 ④ 국가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다.
- ⑤ 사람들은 노후생활자금 부족,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18. 위 글과 관련하여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18)

— <보 기> —

다른 회사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는 바람에 10년 동안 다니던 S씨의 회사도 역시 부도가 났다. 이후 일용직 근로자가 되어 과도한 육체적 노동에 시달리던 S씨는 결국 병이 나고 말았다.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무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몸이 완치되지 않았다. 그러나 S씨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계비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다.

- ① S씨의 실직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전형적인 사회적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S씨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은 사회보험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 ③ S씨와 같은 실직자를 위해서 민간 보험회사는 고용보험상품을 제공하려고 할 것이다.
- ④ S씨의 실업은 상호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 의존적 성격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⑤ S씨가 병원 치료 이후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마련한 사회 안전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의 뉴스를 보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9)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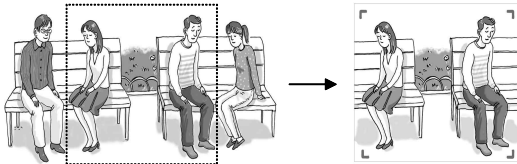
국민연금 상습채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당 △△△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고의로 미납하는 고액·상습 채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고액·상습 채납자의 기준은 6개월 이상 채납 금액이 사업장의 경우 1억 원, 지역 가입자는 천만 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 ○○○ 뉴스 -

- ① <보기>의 법이 적용될 대상자는 저소득자들은 아니군.
- ② 국가가 채납자들에게 가입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려 하는군.
- ③ 국가가 민간 보험에 가입한 고소득자를 사회보험으로 유도하고 있군.
- ④ <보기>의 상습 채납자는 사회보험 제도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셈이군.
- ⑤ <보기>의 상습 채납자는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사회적 연대 의식이 부족하겠군.

[20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진은 회화처럼 화가가 붓을 들고 종이를 메워 나가거나, 조각처럼 정과 망치를 들고 돌을 깎아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 카메라를 포함한 기계적 장치와 사진가의 선택을 통해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이 찰나의 순간에 기록된 이미지에는 사진을 사진답게 만드는 사진만의 특성이 담겨 있다. 사진은 어느 화가의 작품보다도 높은 해상력을 가지며, 어떤 장르의 예술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사실적으로 현실을 보여준다.

이런 이유에서 사진이 과연 예술인가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제작 과정에서 기계의 역할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과 작가가 결과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예술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다음 그림을 보자.



이 그림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듯, 카메라는 렌즈 앞에 존재하는 것만을 프레임 안에 담기 때문에 사진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지 않는다. 말하자면 사진 이미지는 세상의 이미지들 중에서 사진가의 눈을 통하여 선택된 일부인 것이다.

그래서 사진에서는 사진가의 눈이 중요하다. 카메라는 앞에 있는 대상의 의미에 대하여 침묵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가가 대상을 알지 못하면 볼 수도 찍을 수도 없다. 대상을 선정하여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사진가는 대상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 한다. 이것이 사진가에게 필요한 첫 번째 눈 ㉠ '관찰의 눈'이다.

세상의 수많은 사진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누군가의 삶을 기록한 것이다. 사진가의 눈에 비친 그 존재는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시간 위에서 변화하고 있다. 사진가는 변화하는 대상의 존재감 혹은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사진을 통하여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사진가가 갖출 두 번째 눈 ㉡ '존재의 눈'이다.

사진가가 갖추어야 할 세 번째 눈은 ㉢ '시간의 눈'이다. 사진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다. 사진은 카메라의 작동에 따라 물리적인 특성을 지니고 순간적으로 기록된다. 이 순간성이 이 사진의 첫 번째 시간인 물리적인 시간이다. 그러나 기록되는 순간, 대상은 흐르는 시간에서 튀어나와 현재가 되고 영원성을 지닌다. 사진가가 선택한 결정적 순간이 곧 정신적 순간이고, 이 순간을 선택하는 능력이 바로 '시간의 눈'이다.

사진가가 갖추어야 할 네 번째 눈은 ㉣ '소통의 눈'이다. 사진은 시각언어이다. 사진은 현실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의미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드러낸다. 사물을 찍은 사진은 대상의 구체적인 상태나 상황을 재현한다. 대상이 무엇인지 곧바로 인지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진은 세상과의 소통이다. 좋은 눈을 가진 사진가는 사진을 매개로 한 소통을 쉽게 이끌어 내며 사진의 사실감을 넘어서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20. 위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20)

- ㉠ 좋은 사진을 결정하는 요소는 사진기이다.
- ㉡ 사진의 이미지 제작 방식은 회화의 방식을 본 뜬 것이다.
- ㉢ 사진은 순간의 기록이므로 시간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
- ㉣ 사진가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 ㉤ 사진은 사진가의 눈에 비친 세상을 기록하여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21. <보기 2>는 위 글의 ㉠~㉣의 관점에 맞춰 <보기 1>을 평가한 것이다. 관점과 평가 내용의 연결이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21)

<보기 1>

- 권용호, 「삼대독자」 -

<보기 2>

관점	평가 내용	
㉠	쉽게 볼 수 있는 대상의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좋은 사진이다.	가
㉡	할머니의 손이 손자의 몸에 닿는 순간을 잘 포착한 사진이다.	나
㉢	할머니와 손자를 선택하여 흐르는 시간 속의 삶의 의미를 잘 보여 주는 사진이다.	다
㉣	할머니가 손자를 쓰다듬는 모습에서 따뜻한 감정을 전해주는 사진이다.	라

- ㉠ 가, 나
- ㉡ 가, 다
- ㉢ 가, 라
- ㉣ 나, 다
- ㉤ 다, 라

[22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재 의학계에서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과제는 노화와 암이다. 최근 과학자들은 세포의 노화와 관련된 것으로서 DNA의 양끝 부분인 텔로미어를 지목했고, 텔로미어를 만드는 효소인 텔로머라아제의 기능을 응용하면 노화와 암에 대한 신약이나 새로운 치료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텔로미어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DNA의 구조와 복제 과정을 알아야 한다. DNA는 긴 사슬의 형태로 이어져 있는 핵산들의 가닥 2개가 나선 모양으로 결합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 핵산들에는 각각 아데닌(A), 구아닌(G), 시토신(C), 티민(T) 같은 염기가 하나씩 들어 있다. 한쪽 가닥의 아데닌이 있는 핵산은 다른 가닥의 티민이 있는 핵산과, 구아닌이 있는 핵산은 시토신이 있는 핵산과 상보적으로 결합하는데, 이들 염기의 배열 순서가 유전 정보다.

DNA가 복제될 때는 나선 구조의 한쪽 끝이 열리면서 두 가닥이 서로 벌어진다. DNA를 합성하는 효소들은 벌어진 두 가닥을 지나가면서 배열된 염기 순서에 맞춰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핵산으로 새로운 DNA 사슬을 짠다. 문제는 DNA 사슬을 복제할 때 끝부분의 핵산이 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제 효소는 복제 대상인 핵산을 지나서 다음 핵산에 도달할 때 지나온 핵산을 복제한다. 따라서 끝에 있는 핵산은 다음 핵산이 없으므로 효소가 지나갈 수 없고, 따라서 복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복제가 될 때마다 DNA 사슬 끝부분의 핵산이 사라지고, 사라지는 부분에 있는 유전 정보들은 손실된다.

DNA는 진화를 거치면서 양끝에 유전 정보가 들어 있지 않은 짧은 길이의 사슬을 붙이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짧은 사슬이 바로 텔로미어(telomere)다. 생물은 각 종마다 텔로미어의 염기서열과 길이가 서로 다르다. 사람 염색체에 있는 텔로미어는 염기서열 TAGGG가 반복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텔로미어가 유전 정보가 들어 있는 사슬 부분에 덧붙어 있으면 복제 효소가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정보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물론 텔로미어도 세포분열(DNA 복제)이 반복될수록 그 길이가 짧아진다. 텔로미어라 해도 마지막 핵산이 복제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세포분열의 횟수는 조직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그 횟수는 텔로미어의 길이에 따라 결정된다. 텔로미어가 어느 정도의 길이(노화점) 이하로 짧아지면 노화 현상이 생기고 결국 세포가 죽는다.

하지만 모든 세포에서 텔로미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암 세포의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해도 줄어들지 않는다. 즉 분열 횟수가 증가해도 노화 현상이 생기지 않고, 무제한으로 증식한다. 이런 현상은 텔로미어를 만드는 효소인 텔로머라아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텔로머라아제는 텔로미어를 합성한 뒤 DNA 끝에 붙여서 텔로미어 전체의 길이를 늘린다. 이 효소는 모든 세포에 있지만, 정상인의 경우 대부분의 일반 세포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난자를 만드는 전구세포와 혈액 세포를 만드는 조혈모세포 같은, 세포분열이 활발해야 하는 일부 세포에서만 활성화되어 있다.

과학자들은 텔로머라아제의 기능 조절 방법을 밝혀, 텔로미어를 짧아지게 하거나 짧아지지 않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자는 암 치료와, 후자는 노화 방지와 관련이 있다. 암세포 정복

과 장수(長壽)의 꿈을 동시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2. 위 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22)

- ① 텔로미어란 무엇인가
 - DNA 구조의 규명을 중심으로
- ② DNA 관련 질병 치료의 신기원
 - 텔로미어의 효율적 생성 기술을 중심으로
- ③ 노화와 암 치료의 열쇠
 - 텔로미어와 텔로머라아제의 역할을 중심으로
- ④ 수명 연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 텔로미어와 텔로머라아제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 ⑤ 텔로미어는 DNA의 수호자
 - 유전 정보 보존을 위한 방법 마련을 중심으로

23. <보기>의 진술 중에서 텔로미어에 대한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23)

<보 기>

ㄱ. DNA의 일부분이다.
 ㄴ. DNA의 길이를 늘린다.
 ㄷ. 유전 정보의 손실을 예방한다.
 ㄹ. 세포분열의 횟수를 늘려 준다.
 ㅁ. 세포분열이 거듭될수록 길이가 짧아진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ㅁ
- ⑤ ㄴ, ㄹ, ㅁ

24. 위 글에서 영감을 얻은 작가가 <보기>의 영화를 제작했다고 할 때, 영화 속 상황을 추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24)

<보 기>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늙은 상태로 태어나 아기가 돼 죽음을 맞는다는 상상력으로 관심을 모았다.

김버섯이 핀 피부, 안경 없이는 볼 수 없는 나쁜 시력. 1918년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태어난 아이(벤자민 버튼)는 외모가 노인 같았다. 벤자민의 괴상한 외모에 놀란 아버지는 ‘노인 아이’를 한 양로원 앞에 버린다. 그의 나이 12살. 해가 지날수록 자신이 젊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때쯤 벤자민은 할머니를 찾으러 양로원에 온 6살 꼬마 테이지를 만난다. 만나고 헤어지기를 수차례. 벤자민과 테이지는 마침내 함께하게 되지만 그는 날마다 어러지고 테이지는 늙어만 간다.

- ① ‘테이지’의 할머니는 전구세포들의 텔로머라아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야겠지.
- ② 작가는 일반 세포 속 텔로미어가 길어지면 사람이 육체적으로 젊어진다고 설정한 것으로 보여.
- ③ 성인이 된 ‘테이지’의 일반 세포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염색체의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졌을 거야.
- ④ 6살 꼬마 ‘테이지’의 경우 일반 세포 속 텔로미어의 길이는 당시 ‘벤자민’의 경우보다 짧다고 봐야 해.
- ⑤ 태어난 직후의 ‘벤자민’은 세포의 텔로미어 길이가 노화점 부근에 머물러 있었다고 가정한 것으로 보여.

[25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유럽인들에게 쫓겨 강제로 거주지를 옮겨야만 했던 케냐의 마사이 족은 새로운 정착지에 원래 살던 곳의 지명을 그대로 붙였다. 이와 비슷하게 유럽인들 역시 신대륙에 정착하면서 유럽의 지명들을 붙였다. 그들은 왜 새로운 곳에 예전의 지명을 붙였을까? 그것은 ‘공간’을 ‘장소’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증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인간이 머릿속에서 기하학적으로 ㉠ 측량하고 재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공간은 인간이 활동하는 배경으로만 여겨지거나 인간의 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인본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각각의 공간들은 다른 공간들과 구별되는 자연적·인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징으로 ㉡ 구성된 곳을 장소라고 한다. 공간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속성을 담고 있는 개념이라면, 장소는 특수하고 예외적인 속성을 담고 있는 개념이다. 즉 장소는 주관적이고 개성적이며 독특한 것을 담고 있는 곳이다. 인간은 일상생활 속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경험하고, 이를 해석하며, 의미를 ㉢ 부여한다. 이러한 일상적 경험을 통해 물리적인 ‘공간’이 인간의 감정이 이입된 상징적 ‘장소’로 바뀌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는 가로수 길이 그곳과 관련을 맺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공간’이지만, 헤어진 연인과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추억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인간에게 장소는 그곳의 실제적인 쓰임새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는다. 이는 자신들의 장소를 파괴하려는 외부의 힘에 ㉣ 대항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또 어떤 장소를 동경하거나 향수병을 겪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결국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도 살고 있는 또는 특히 감동적인 경험을 가졌던 장소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 장소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인간답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장소로 ㉤ 충만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며,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는 심오하고도 복잡한 곳이 바로 장소라는 것이다.

이렇게 장소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안정감을 주고 정체성을 갖게 한다. 따라서 의미 있는 장소를 경험하고, 창조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런 방법들이 사라지고 있는 탓에 ㉥ 몰장소성(沒場所性)이 확산되고 있다. 즉 장소가 지닌 독특하고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이 약화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징적인 장소들을 훼손하는 현상과 규격화된 경관 만들기 현상이 그것인데 이런 몰장소화는 인간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다. 몰장소성은 결국 뿌리를 잘라내고, 다양성을 획일성으로, 구체적 장소를 개념적 공간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25. 마사이 족과 유럽인들이 새로운 곳에 예전의 지명을 붙인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5)

- ①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 ②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서이다.
- ③ 새로운 곳에 대한 낯섬을 덜기 위해서이다.
- ④ 새로 정착한 곳에서 빨리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이다.
- ⑤ 자신들을 쫓아낸 이들에게 저항감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26.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26)

< 보 기 >

오스트레일리아의 중앙에는 울루루(Uluru)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의 단일 바위가 있다. 울루루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한다. 관광객들은 원하면 이 바위에 올라가 볼 수도 있는데, 등반로 입구에 가면 다음과 같은 팻말들이 붙어 있다.

울루루에 올라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세게 불거나 비가 오면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다가 떨어지거나 미끄러져서 죽거나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울루루 국립공원관리공단

당신들은 이 바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바위가 신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루루가 보호되고 존경받기를 바라며 올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 울루루 원주민

- ① 울루루에 가보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울루루는 ‘공간’일 것이다.
- ② 울루루에 관광객들이 등반하지 않기를 바라는 원주민에게 울루루는 ‘장소’일 것이다.
- ③ 살 곳을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울루루에 도착한 원주민에게 울루루는 ‘장소’일 것이다.
- ④ 울루루에 올라가다가 떨어져 다친 기억이 남은 관광객에게 울루루는 ‘공간’일 것이다.
- ⑤ 자연 현상을 이유로 울루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게는 울루루가 ‘장소’일 것이다.

27. 문맥상 ㉠~㉤를 바꿔 쓸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7)

- ① ㉠: 헤아리고 ② ㉡: 이루어진 ③ ㉢: 붙인다
- ④ ㉣: 맞서는 ⑤ ㉤: 가득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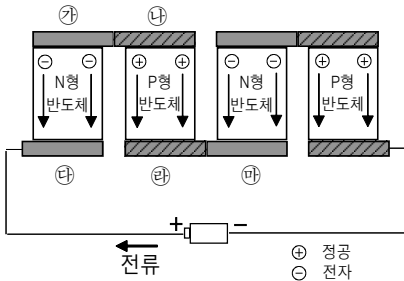
[28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중반 인쇄공인 해리슨은 활자를 세척하던 중 에테르가 증발하면서 손이 차가워지는 데 착안하여, 이를 냉매로 한 냉장고를 개발하였다. 냉장고는 이처럼 액체 상태의 냉매가 기체가 되면서 주위로부터 열을 빼앗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반대로 기체 상태의 냉매가 다시 액체로 바뀔 때는 열을 방출한다. 냉장고 뒤에 있는 파이프들은 이 열을 식히는 장치이다. 그래서 냉장고에는 냉매와 파이프, 그리고 모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요즘에 일반 냉장고와는 달리 이런 장치가 없는 냉장고가 인기를 ㉠ 끌고 있다. 대신 이 냉장고에는 ‘열전반도체’가 있다.

열전반도체는 전자(음전하)가 많은 N형 반도체와 정공(양전하)이 많은 P형 반도체를 붙여 만든 것이다. 열전반도체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전원의 양극(+)으로, P형 반도체에 있는 정공은 음극(-)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런데 전자나 정공이 이동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접합된 부분에서 열을 흡수한 다음에, 다른 접합 부분에서 열을 방출하게 된다. 그러면 한쪽 접합부는 차갑고, 다른 한쪽 접합부는 뜨겁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냉동을 열전 냉동이라 한다. 이것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연결한 후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두 금속의 접합부에서 열이 발생하거나 흡수되는 ‘펠티에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옆의

그림에서처럼 열전반도체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N형 반도체의 전자는 ㉡ 부분에서 ㉢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왜냐하면 전자는 전류의



반대 방향인 전원의 양극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P형 반도체에 있는 정공은 ㉣ 부분에서 ㉤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왜냐하면 정공은 전원의 음극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의 접합부 ㉡와 ㉢는 열을 빼앗겨 차갑게 되는 반면에, 다른 접합부인 ㉣와 ㉤는 뜨겁게 된다.

한편 온도차를 이용하면 열전반도체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다. 열전반도체의 한쪽에 열을 가해 다른 쪽과 온도 차를 만들면 고온부에 있는 전자 및 정공은 저온부에 있는 것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된다. 전자와 정공은 온도가 낮은 저온부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전자의 이동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처럼 열전반도체를 이용하여 전류를 얻는 발전을 열전 발전이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전류는 온도차와 비례한다. 이것은 서로 다른 금속을 연결한 후 접합부에 가열하면 전류가 발생하는 ‘제벡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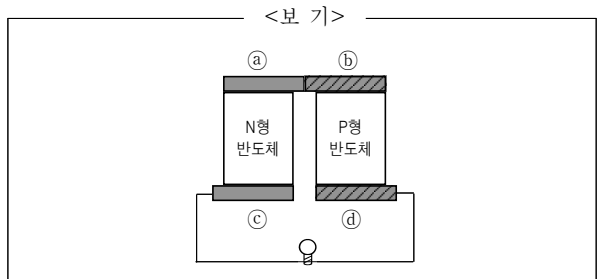
펠티에 효과나 제벡 효과를 열전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열전 현상은 1800년대에 발견되었으나 효율이 낮아 별로 이용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열전반도체의 개발로 효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면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열전반도체는 기존 시스템에 비해 여러 장점이 있다. 우선 온도의 유지나 조절을 정확히 할 수 있다. 또한 열전반도체를 이용한 시스템은 진동이나 소음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부품이 적어 작게 만들 수도 있다. 게다가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환경 친화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

2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8)

- ① 일반 냉장고에는 냉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② 전자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 ③ 펠티에 효과나 제벡 효과를 열전현상이라고 한다.
- ④ 열전 냉동은 열전반도체를 이용하여 냉동하는 방법이다.
- ⑤ 열전현상은 열전반도체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29.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열전 발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9)



- ① c와 d에 열을 가하면 전류는 ‘c→a→b→d’로 흐른다.
- ② b에 열을 가하면 P형 반도체에 있는 정공이 d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 ③ a·b의 온도와 c·d의 온도의 차가 클수록 발생하는 전류도 커진다.
- ④ a에 열을 가하면 그 부근에 있는 N형 반도체의 전자가 c 부근에 있는 전자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된다.
- ⑤ d에 열을 가하면 그 부근에 있는 P형 반도체의 정공이 b 부근에 있는 정공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된다.

30. ‘펠티에 효과’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30)

- ① 정확한 온도를 유지해 주는 약보온기
- ②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작게 만든 휴대용 냉장고
- ③ 냉수와 온수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냉온 정수기
- ④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자동차 시트
- ⑤ 열을 전류로 바꾸어 온도를 표시해 주는 전자 온도계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황지우, 「출가하는 새」 -

(가)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서늘웁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가고 ㉠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웅숭거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워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들고
웁깃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햇웃* 벗고 도로 좁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春雪)」 -

- * 우수절(雨水節) : 24절기의 하나. 입춘(立春)과 경칩 사이
- * 이마받이 : 이마를 부딪치는 짓
- * 웁숭거리고 : 몸을 움츠러들고
- * 햇웃 : 숨을 두어 지은 웃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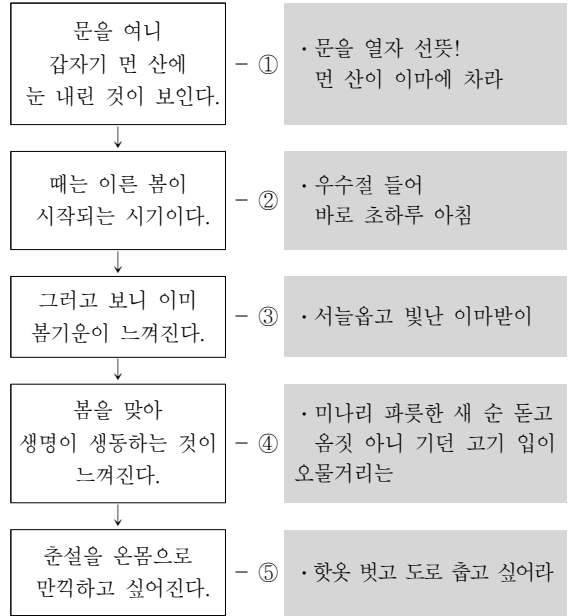
새는
자기의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자기가 앉은 자리에
자기가 남긴 체중이 잠시 흔들릴 뿐
새는

자기가 앉은 자리에
자기의 투영이 없다.
새가 날아간 공기 속에도
새의 동체가 통과한 기척이 없다.
과거가 없는 탓일까

새는 낚새나는
자기의 체취도 없다.
울어도 눈물 한 방울 없고
영영 빈 몸으로 빈털터리로 빈 몸뚱아리 하나로
그러나 막강한 풍속을 거슬러 갈 줄 안다.

생후(生後)의 거센 ㉡ **바람** 속으로
갈망하며 꿈꾸는 눈으로
바람 속 내일의 숲을 꿰뚫어본다.

31. (가)의 내용 흐름을 다음과 같이 파악할 때, 근거가 되는 시어가 적절하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31)



32. (나)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32)

- ① 시행의 서술어에 주목했어. 부정적 의미의 서술어를 반복하여 새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
- ② 시상 전개 방식에 주목했어. 새의 외면을 응시하다가 새의 내면을 응시하며 마무리하고 있는 듯해.
- ③ 제목에 주목했어. 제목에 사용된 '출가'와 '새'는 이 시의 주제 의식과 시적 대상을 파악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거야.
- ④ 수사법에 주목했어. '자취'에서 시작하여 '체중'과 '자리', 그리고 '체취'로 시적 대상의 의미를 점층적으로 확대하는 것 같아.
- ⑤ 화자의 태도에 주목했어. 시적 화자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를 새의 모습에 투영한다고 할 수 있어.

33. ㉠과 ㉡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33)

- ① ㉠과 ㉡은 모두 상승적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 ② ㉠과 ㉡은 모두 엄숙한 작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 ③ ㉠은 일상적 의미, ㉡은 상징적 의미가 주로 드러난다.
- ④ ㉠은 화자와 대립되는 존재, ㉡은 화자와 동화된 존재이다.
- ⑤ ㉠은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은 심리적 갈등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34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복실 : (부엌을 향하여) 어머니.
처 : (무언)
복실 : (조심스러이) 어머니.
처 : ㉠ 말없이 솔뚜껑을 열어보고 다시 바다만 바라본다.)
복실 : (하늘을 쳐다보고 혼잣말로) 날이 좀 갠라나? (다시 모(母)를 보고 좀 크게) 어머니.
처 : 이년아 숨넘어가지 않는다. 왜 귀찮게 자꾸 부르니 부르길. 오래잖아 닭 울 텐데 까라는 조개나 깔 것이지.
복실 : (통명한 모의 말에 어이가 없어) 아이 참 거 대답 좀 하시면 어떻수.
처 : 말하기도 귀찮아.
복실 : 너머 역정만 내지 마요. 아버지께서도 술만 잡숫고 밤낮으로 뜰집만 잡으시는데 어머니마저 그러시면.
처 : ㉡ 또 한 척 들어왔나 본데.
복실 : 아까 소나무 선장에 댔다가 물결이 세니까 이쪽으로 다시 대는 거 아녜요?
처 : 그 옆에 칠성기 단 배 말이다.
복실 : 나루 못 미쳐 판돌네 배여요. 허—연 형겁으로 붉은 돛을 누덕누덕 긴 걸 보면 모르세요?
처 : (불평이 찬 말로) 너는 추녀 끝에 웅배기 좀 못 치겠니? 고 빗방울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들으면 오장육보가 바삭바삭 오구라드는 것 같다.

(중략)

복실 : 어머니도 너머 역정 내지 마세요. 한숨에 땅이 푹 꺼질 것 같수. (뒤란으로 나간다. ㉢ 먼 마을 개 짖는 소리 ‘멍~’하고 뒷산에 울려온다. 파도 소리 점점 커진다.)
처 : (불길한 예감에 놀라 부엌에서 뛰어나오며 눈을 휩뜨고) 그 날이 꼭 오늘이야. 그날이 오늘이야.
복실 : (뒤란에서 쫓아 나와 매달리며) 어머니 어머니 진정하세요. 석이가 불쌍치 않으세요. 이 비 쏟는 춘 밤에 조개 잡어가지고 오다가도 어머니 이리시는 것만 보면 애가 타서 하는데.
처 : (머리에 손을 얹고 잠시 무언)
복실 : 죽은 제가 쓸 테니 제발 들어가 주무세요. 네?
석이 : (㉣ 쪽지개에 조개를 잡아 지고 개펄투성으로 들어온다.) 어머니, 날이 어떻게든 쌀쌀한지 개펄 속에서 정갱이가 그대로 뻗뻗이 굳겠어.
복실 : 아이 가엾어라. 흠궤구나.
석이 :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이 아무래도 또 한바탕 쏟아질라나 봐. 여드레 밤낮을 쏟아놓으면 고만이지, 지긋지긋이도. (부엌 앞에다 지개를 내려놓으며) 어머니 어젯 밤은 좀 주무셨수?
복실 : 밤새 개[浦]*를 울고 헤매셨단다.
처 : (만— 일을 쫓는 듯이) 큰아이 죽든 날도 꼭 가을 꼭두새벽 이맘때야. 그날도 청승맞게 황둥개가 짖었지. 아마.
석이 : (금시 풀이 죽으며) 여드레 밤을 꼬박 울고 새셨으면 고만이지 어젯밤도 개를 헤매셨다니 하루이틀 아니고

참말이지 어찌 살겠소?
[개] **복실** : 큰오빠 죽은 뒤로는 바람만 불어도 갈매기만 안 울어도 작은 오빠 죽었다고 물가를 외치고 단기시니.
처 : (석이와 복실의 말은 들은 척도 않고) 느 아버지네 토담 앞에서 그물을 뜨고 복실이는 지금 앉은 바로 그 자리에서 조개를 까고 나는 부엌에서 복조가 먹고 갈 시래기죽을 쑤고 있을 때야.
석이 : 집이라고 터덜거리고 들어와야 웃는 낮이 하나도 없으니 당최 맥이 풀려.
처 : 시커먼 그 무슨 이상한 생각이 번개같이 휩 머리를 지나갈래 부엌문을 튀어나왔드니.
석이 : (울음 섞인 말로 모의 말을 막고) 그때 수상경찰서 순사하고 쇠뿌리 사공이 잔물에 퐁퐁 얼은 큰성 바지 저고리를 들고 들은 얘기는 안 해도 다— 알아요.
복실 : 어머니 이것이 어디 우리만 당하는 일이에요. 지난 일을 끄집어내서 우시고 우시고 하시면 산허구리*에 고기잡어 먹고 살 사람 있겠어요?
석이 : 남이라 살라구.
처 : 하나님도 설마 복조마저야 안 잡어가시겠지. 그러나 같이 나갔던 배들 한 척 두 척 벌써 다— 들었는데 아직도 열 두 척만 꿩 귀 먹은 소식이니 벌써 물귀신 다 됐을거야. 지금쯤은 몸뚱이 벌써 죄다 파 먹히고 바지저고리만 어느 바위틈에 켜올 거다.
복실 : 어머니 무슨 악바친 소리를 그리 하슈. 빈말이라도 부모 말이 등에서 안 떨어진다는데.
석이 : 아버지 술 잡술 적마다 큰누나더러 못산다 못산다 하시드니 시집간 후 지금껏 고생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작은성이 그렇게 됐다면 그래 좋겠어요?
처 : 차라리 죽었다면 잠이나 한잠 식—식 자지.
복실 : ㉤ 이번 풍량은 대단치도 않단데.
처 : 분이아범(큰사위)도 내 딸을 시퍼런 과부를 만들어 놓고 물에서 죽었지.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 그래. 느 아버지 상어 이빨에 윈다리 몽땅 끊어지든 날도.
석이 : 글썽 제발. (울면서 발을 구른다.)

— 함세덕, 「산허구리」 —

* 개[浦] :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 물가, 바닷가.
 * 산허구리 : 산등성이의 갈록하게 들어간 곳. 여기서는 동네가 위치한 곳.

34. 위 글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4)
- ① 시간을 역전시켜 사건이 전개되고 있군.
 - ② 공간 이동에 따른 인물의 행위가 초점화되고 있군.
 - ③ 사건 진행에 따라 인물이 처한 상황이 상세화되고 있군.
 - ④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군.
 - ⑤ 시간적 배경이 구체화되어 사건이 역사적 의미로 연결되고 있군.

35. 위 글을 통해 추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³⁵⁾

- ① ‘석이’가 어머니에게 반발하는 이유는 불길한 말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 ② ‘복실’은 무능력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
- ③ 아버지가 식구들을 박대하는 이유는 불구가 된 몸을 비판하기 때문이다.
- ④ 큰사위와 큰아들의 죽음을 경험한 어머니는 자신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다.
- ⑤ ‘석이’는 큰형의 죽음이 확인된 날의 상황을 근거로 ‘복조’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36. [가]에서 ‘처’ 대사의 특징과 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³⁶⁾

- ① 상상한 것을 경험한 사실처럼 말해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② 다른 인물의 말에 엉뚱한 반응을 보여줌으로써 긴장된 분위기를 이완시키고 있다.
- ③ 연결되는 일을 시간차를 두고 말하여 상대방의 궁금증을 의도적으로 유발하고 있다.
- ④ 다른 인물과 소통하지 않고 혼잣말하듯이 말하여 자신의 의식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다른 인물의 말을 연속적으로 왜곡함으로써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7. ㉠~㉣에 대해 연출자가 할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³⁷⁾

- ① ㉠: 연기자는 궁핍한 삶으로 인한 고뇌와 좌절이 표정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연기해야 합니다.
- ② ㉡: 연기자는 자식의 소식을 궁금해 하는 어머니의 조바심을 잘 드러내야 합니다.
- ③ ㉢: 음향 담당자는 ‘개 짖는 소리’가 ‘처’가 느끼는 예감과 관련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④ ㉣: 소품 담당자는 개필에서 고생한 모습이 의상을 통해 관객에게 역력히 보이도록 준비해 주세요.
- ⑤ ㉤: 연기자는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는 의도가 대사를 통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38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승상이 배를 타고 황하로 들어가니, 백이해 승상 오심을 듣고 마중 나와 맞아 영중(營中)에 들어가 국가사(國家事) 가이없음을 아뢰거늘, 승상이 탄식 왈,

“내 이리 옴은 폐제를 회복코져 하여 남방 각진을 돌아 운남(雲南)으로 왔으니, 그대도 아무날 배를 출발하여 운남 절도사 신사덕과 합세하라.”

하시니, 백이해 허락하거늘, 승상 왈,

[A] “이리이리하라.”

하고 떠나려 하니, 백이해 왈,

“승상이 이제 어디로 행하시나이까.”

답 왈,

“나는 황토에 들어가 폐제를 뵈옵고 날을 기다려 떠나려 하노라.”

백이해 왈,

“육로(陸路)로 가시면 길이 험악하오니, 수로(水路)로 가시게 하옵소서.”

하고, 사공에 분부하여 빠른 배를 선창에 대라 하고 승상을 모시고 선창에 나아가니 동남풍이 일어나거늘, 백이해 왈,

“승상의 충성을 하늘이 알으셔 때 없는 동남풍이 부오니, 폐제를 수이 뵈오리다.”

하직하고 돌아와 각처 배들을 단단히 경계하더라.

승상이 배를 타고 삼일 만에 황토에 득달하니, 사공이 여쭙오되,

“수로(水路) 사천 리를 삼 일만에 득달하오니 가장 괴이하여이다.”

승상이 속으로 크게 기뻐 사공을 보내고 폐제의 유배된 곳에 들어가니, 가시로 성을 쌓고 있는지라. 승상이 관을 벗고 사립문 밖에 엎디어 통곡하니, 폐제 들으시고 크게 놀라 신하를 보내어 물으시니 아뢰되,

“전(前) 승상 장경이 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폐제 내달아 승상을 붙들고 통곡하시니, 승상이 위로 왈,

“폐하 이렇듯 하심은 다 신의 죄오니, 무슨 면목으로 뵈오리까마는 죄를 무릅쓰고 명령을 기다리오니, 폐하는 옥루(玉淚)를 거두소서.”

폐제 울음을 그치시고 승상의 손을 잡고 위로 왈,

[B] “내 덕이 밝지 못하여 그대를 귀양 보내고 이 욕을 당하니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리오. 경은 안심하라.”

하시고, 처소에 들어가 건성(建成)이 모반하던 말씀을 이르며 물은즉, 승상이 도망한다 하매 다행하여 혹 찾아올까 고대하던 말씀을 차례로 하시니, 승상 또한 악명(惡名)을 씻지 못하고 천명을 기다리더니, 한 꿈을 얻어 도주하여 청운산 승당(僧堂)에 가 애첩 초운을 만나던 말과 남방 각진을 두루 돌아 약속한 말씀을 차례로 아뢰니라.

(중략)

승상이 폐제를 모시고 남성문에 올라 청룡기(靑龍旗)를 두르니, 좌선봉 양철이 십만 정병을 거느리고 동성문을 쳐 백이해를 맞아들이고 백호기(白虎旗)를 두르니 우선봉 신담이 팔만 정병을 거느려 서성문을 쳐 유지업을 맞아들이니, 삼대진(三大陣)이 합세하여 궁성을 둘러싸고 치니 대장 추통이 군병 대세를 당치 못하여 죽도록 막더니, 선봉장 양철이 말을 몰아 추통과 접전하여 이십여 합에 승부를 결단치 못하더니, 총독장 마맹덕이 말 위에서 보다가 크게 소리하고 달려들어 일함에 추통의 머리를 베어 선봉 깃대에 달

[가]고 좌충우돌하니, 건성이 추통의 죽음을 보고 크게 놀라 신하들을 거느리고 북문으로 달아나거늘, 승상이 북을 울리며 기를 돌려 좌우 군병을 재촉하여 급히 따르니, 건성이 후군(後軍) 급함을 보고 유성장 한원과 도총독 배웅으로 뒤를 막으라 하고 단더니, 선봉장 양철이 군사를 재촉하여 쫓아가며 후군을 치니 한원 등이 선봉을 막거늘, 양철이 달려들어 한원을 베고 우선봉 신담은 배웅을 베고 급히 쳐들어가니, 건성군이 힘이 다하매, 중서랑 추원에게 명하여 옥새를 봉하여 드리거늘, 양철이 마상에서 칼 끝에 받아 들고 크게 외쳐 왈,

“반적 건성은 하늘로 오르며 땅으로 들다. 어디로 가리오.”

하며 칼을 빼어 들고 달려들거늘, 승상이 급히 말려 왈,

“건성의 죄는 죽음직하나 선제(先帝)의 혈육이라. 양원수는 진정하라.”

하시니, 양철이 건성의 용포(龍袍)와 금관(金冠)을 벗기고 따르던 신하들을 다 결박하여 앞에 세우고 폐제를 모시고 이날 환궁하사 선종고를 울리며 황극전(皇極殿)에 나와 앉으시니, 제장 군졸이 만세를 부르며 역모에 가담한 신하들을 차례로 항복받아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하고, 비군을 잡아내어 능지처참하고 건성의 황비(皇妃)를 백과강 가에 내치니, 건성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천수산에 들어가 주려 죽으니라. 승상이 폐제를 받들어 중사에 나아가, 다시 천자사직(天子社稷)을 받드신 후에 천하가 태평하더라.

이적에 폐제 섬기던 신하들이 산중에 숨었더니, 기별을 듣고 모두 들어와 천자를 섬기느니라.

승상이 남북방 군사를 위로하여 보낸 후에 천자께서 큰 연회를 벌여 잔치하실새, 상이 친히 잔을 들어 승상께 전하시고 명령 왈,

[C] “짐이 경등(卿等)으로 더불어 오늘날 즐김은 다 승상의 덕이라. 어찌 그 은혜를 모르리오.”

하시고, 이날 장경을 연왕으로 봉하시고 곧 유지를 내리우시니, 승상이 사은(謝恩)하시고 돌아오니 연국(燕國) 신하들이 잇달아 위의(威儀)를 차려 왔느니라.

- 작자 미상, 「장경전」 -

38. 위 글의 내용을 한자성어를 이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8)
- ① 장경이 황토로 찾아간 것은 유배된 폐제에게 면종복배(面從腹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 ② 장경이 폐제를 위해 군사를 모은 것은 신하로서 견마지로(犬

- 馬之勞)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 ③ 폐제와 장경이 건성에게 대적하여 군사를 일으킨 것은 권토중래(捲土重來)한 것으로 볼 수 있어.
 - ④ 폐제가 장경을 붙들고 통곡한 것은 폐제의 절치부심(切齒腐心)했던 마음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어.
 - ⑤ 폐제가 복위되고 건성이 쫓겨나는 것이 장경의 입장에서는 사필귀정(事必歸正)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39. [A] ~ [C]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39)[3점]
- ① [A]의 계획은 [B]의 대화 내용에 포함된다.
 - ② [B]의 ‘폐제’는 [A]의 대화를 이미 알고 있다.
 - ③ [B]의 인물 관계는 [C]에서 극적으로 역전된다.
 - ④ [C]는 [A]를 추진할 수 있는 직접적 계기가 된다.
 - ⑤ [B]의 대화에 담긴 거짓은 [C]에서 반어적으로 폭로된다.

40. [가]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40)
- ① 사건의 빠른 진행을 통해 장면의 긴박감을 전달하고 있어.
 - ② 전기적(傳奇的) 요소를 통해 중심인물을 부각시키고 있어.
 - ③ 인물의 성격 변화 과정을 제시하여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어.
 - ④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독자에게 선명한 인상을 주고 있어.
 - ⑤ 다양한 일화를 유기적으로 조직하여 사건의 인과관계를 드러내고 있어.

[41~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곡(一曲)은 어디리오 관암(冠巖)에 히 비췌다
 평무(平蕪)에 닉* 거드니 원산(遠山)이 그림이로다
 송간(松間)에 녹준(綠樽)*을 노코 벗 오느 양 보노라
<제2수>

이곡(二曲)은 어디리오 화암(花岩)에 춘만(春晩)커다
 벽파(碧波)에 곳을 찍워 야외(野外)로 보노노라
 사람이 승지(勝地)을 모로니 알게 혼들 엇더리
<제3수>

삼곡(三曲)은 어디리오 취병(翠屏)*에 닉 퍼젓다
 녹수(綠樹)에 산조(山鳥)는 하상기음(下上其音)**흔는 적의
 반송(盤松)이 바름을 바드니 녀름 경(景)이 엇식라
<제4수>

사곡(四曲)은 어딴(어디) 송애(松崖)에 히 넘거다
 담심 암영(潭心岩影)*은 온갖 빗치 즈겨세라
 임천(林泉)이 깊도록 댘호니 흥(興)을 계워 흐노라

<제5수>

오곡(五曲)은 어딴(어디) 은병(隱屏)*이 보기 도타
 수변 정사(水邊精舍)*은 소쇄(瀟灑)흙*도 ㅁ이 업다
 이 중(中)에 강학(講學)도 하려니와 영월 읍풍(詠月吟風)* 흐
 리라

<제6수>

- 이이, 「고산구곡가」 -

- *평무에 닉: 들판의 안개.
- *녹준: 술동이.
- *취병: 푸른 병풍 같은 절벽.
- *하상기음: 아래위로 지저귀.
- *담심 암영: 못 속에 바위가 비칠.
- *은병: 눈에 잘 띄지 않는 절벽.
- *수변 정사: 물가에 세운 집.
- *소쇄흙: 기운이 맑고 깨끗함.
- *영월 읍풍: 달과 바람을 읊으며 시를 지음.

4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41)

- ①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② 구조가 유사한 문장 형식을 반복하여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③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구체적 공간들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비교해 가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시선이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2)[3점]

< 보 기 >

「고산구곡가」는 황해도 해주 고산면에 은거하던 율곡 이이(李珣)가 주자(朱子)의 「무이도가」를 본떠서 지은 연시조 작품으로, 매 수마다 고산의 승경지(勝景地)를 소개하고 있다.

자연의 질서를 토대로 시상을 전개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유기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자연 친화적 태도를 지니고 아름다운 풍경을 누리면서 학문 탐구에 열중하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① 들판에 안개가 걷히는 순간을 포착하여 그림같이 아름다운 '관암'의 아침 풍경을 제시하고 있군.
- ② 벽파에 꽃을 띄워 '아외'에 보냄으로써 고산의 승경지인 '화암'을 소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보여 주고 있군.
- ③ '산조'와 '반송'이 어우러진 '취병'의 풍경을 통해 자연의 질서를 받아들임으로써 학문 탐구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내적 갈등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 있군.

- ④ '송애'의 해 저물 무렵 못 속에 바위가 온갖 빛을 받아 빛나는 모습을 보며 흥겨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군.
- ⑤ '은병'의 '수변 정사'에서 느껴지는 맑고 깨끗한 기운을 학문에 열중하는 화자 자신의 모습과 관련짓고 있군.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 황만근이 새벽에 경운기를 타고 나가서 다음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민씨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민씨는 이장이 권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제 밤에 내일 권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씨를 흘기듯 노력보았다.

“왜, 농민보고 농민권기대회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다.” 민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다.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 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카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부채 탕감 촉구 전국농민 총권기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카는데 뭐가 잘못됐다 말이라.”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나. 읍에 가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데서 술 처먹고 주질러앉았을 기라. 백 텃길을 경운기를 끌고 갔으이 시간도 마이 걸릴 기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버렸다.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기 내 말이라? 투쟁방침이 그렇다 카이. 경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신 고장, 만그이가 그걸 하루이틀 몰았다. 남들이 못 몬다뿌이지.”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 이장님부터 술선수법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 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잖습니까.”

“㉢ 내사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올매나 바쁜 사람인데 경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다.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소 앞에서 모이가고 트럭 타고 갔는 거를. 진짜로 경운기를 끌고 갔으마 군 대회에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가이고 온 사람도 밧 없더마. 소리마 밧 분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갈 수나 있던가. 국도에 차들이 미치페이맨구로 썩 달리는데 받치만 우애라고. 다른 동네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썩어.”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

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잖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준 다면서요. 허허, 나 참.”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놓더이, 사람 말을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해싸. 누구멘구로 반동가리가 났나.”

기어이 민씨는 소리를 버럭 지르곤야 말았다.

“㉔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구요.”

“이 자숙이 뉘 앞에서 눈까리를 똑바로 뜨고 소리를 뽁뽁 질러썩노. ㉕ 도시에서 쫓딱 망해가이고 귀농을 했시도 압전하게 낚작 얻드려 있어도 동네 사람 시키줄까 말까 한데, 뭐라꼬? 내가 만그이 이미냐, 애비냐. 나이 오십 다 된 기 어테를 가든 동 오든동 지가 알아서 해야지, 목사리 끌고 따라다니니까?”

[중략 부분 줄거리 - 황만근이 실종되어 돌아오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불편해 한다. 유복자로 여덟 달만에 태어난 황만근은 지능이 모자라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마을에서 반편이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마을의 온갖 굵은일을 도맡아 하는 부지런한 농사꾼으로 살아왔다.]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농민 총궐기대회’가 열린다고 이장이 방송을 해서 저녁에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였다. 황만근은 누구보다 먼저 나타났고 이장이 시키는 대로 마을구관장에서 막걸리를 받아왔다. 스테인리스 물잔이 두어 개밖에 없어서 한 사람이 마시면 다음 사람이 받고 하는 식의 술자리였다. 황만근은 자신의 차례가 되면 번개처럼 잔을 들어 마시고는 눈을 깜박거리면서 잔이 도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황만근의 관심은 오로지 잔이 언제 돌아올까 하는 것뿐인 듯했다. 그래도 잔이 도는 속도는 너무 느렸다. 민씨에게는 좀 빠른 듯했지만.

“그래서 우리 동네서도 군청 앞에서 열리는 대회에 전원 참가를 해야겠다, 이 말이라. 집에 돌아가거들랑 경운기를 깨끗이 손질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민소 앞까지 끌고 와서 집합을 하라는 기 행동지침이라. 그래가이고 군청까지 가는 국도로 경운기로 길기 행진을 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라.”

“경운기가 없는 사람은 어쩌나요?”

민씨가 물었다.

“농사짓는 사람이 경운기도 없다 하마 농사꾼이 아니지랴. 그랜께 민씨는 농사짓는 기 아이라. 비니루하우스 안에 꽃 밭 송이 심가놓고 우째 농사를 짓는다 카나.”

“어디 고장 난 경운기는 없어요? 경운기가 꼭 있어야 합니까.” 무안해진 민씨는 둘러보며 물었다. 새마을지도자인 황철석이 대답했다.

“말이 그렇다는 기지, 민소^㉔까지는 경운기를 끌고 가든동 버스를 타고 가든동 하고, 그 답에는 경운기를 같이 타마 되지, 까이거. 그랜께 민씨는 진짜 농사꾼도 아이면서 왜 자꾸 농민 궐기대회에 나갈라고 캐싸.”

“아아, 저도 부채는 남부럽지 않게 있어요.”

또래인 황학수가 말을 이어받았다.

“농사를 지도 부채, 농사를 몰라도 부채. 아이고, 그라마 우리

를 다 합치가이고 부채 말고 선풍기를 해도 되겠네.”

그날 분위기는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 그렇다고 시시덕거리며 끝낼 정도로 가벼운 것도 아니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농협에서 융자금 상환을 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해서 법원에 불러 다니는 사람이 두셋 되었다. 스스로 진 빚도 문제였지만 서로 연대보증을 서는 바람에 한 가구가 파산하면 보증을 선 사람 역시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동네 전체가 야반도주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 민소 : 민소, 면사무소의 사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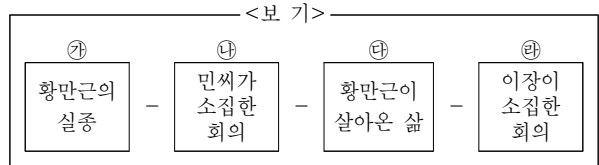
4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43)

- ① 인물들의 행위를 과장하여 해학성을 높이고 있다.
- ② 극적인 반전을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③ 구어체 사투리를 구사하여 작품에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섬세한 인물 묘사를 통해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⑤ 장면 변화에 따라 서술 시점을 달리 해 입체감을 주고 있다.

44. ㉑~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4)[3점]

- ① ㉑ : ‘이장’은 방침을 내세우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② ㉒ : ‘민씨’는 상식적인 이치를 들어 ‘이장’의 잘못을 따지고 있다.
- ③ ㉓ : ‘이장’은 당시의 상황을 핑계로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고 있다.
- ④ ㉔ : ‘민씨’는 자신을 무시하는 ‘이장’의 태도에 분노해서 흥분하고 있다.
- ⑤ ㉕ : ‘이장’은 경제적 지위를 앞세워 자신의 열세를 만회하려고 하고 있다.

45. 위 글의 내용 흐름을 <보기>와 같이 나타낼 때, ㉑~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45)



- ① ㉑는 시간상으로 ㉓와 ㉔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 ② ㉒와 ㉔에 드러나는 회의 분위기는 동일하다.
- ③ ㉒와 ㉔를 통해 ㉑의 정황을 알 수 있다.
- ④ ㉒에 요약된 내용이 ㉓와 ㉔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⑤ ㉔를 개최한 이유는 ㉒에서 해결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고진감래(苦盡甘來) 국어 모의고사 5회 정답 및 해설

1) 1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확인: 조사한 자료를 활용

배 교수는 축제를 관람한 인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 자료로 삼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확인: 토의 참여자의 발언에 감정적 대응

이 위원장은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을 뿐이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③ 확인: 토의를 하게 된 배경을 생각해

사회자는 지역 축제가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토의를 시작하고 있다.

④ 확인: 자료의 신빙성에 문제 제기

김 사무국장은 배 교수가 조사한 자료의 신빙성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 단지,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을 뿐이다.

⑤ 확인: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며

김 사무국장은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지 않다.

2) 1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확인: 올해 축제가 잘 끝났다

이 위원장은 올해 축제가 잘 끝났다고 말한 적이 없다. 오히려 성과가 예년만 못하다고 말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확인: 우리 고장 축제의 문제점

이 위원장은 토의 주제에 관해서 우리 고장 축제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기보다는 인력과 자금의 부족함, 시간적인 한계 등을 근거로 하여 상대의 의견에 대해 반박하고 제한적으로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문제점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밝히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위원장에게 토의 주제와 관련된 '우리 고장 축제의 문제점'을 물어볼 수 있다.

③ 확인: 다른 대안

배 교수는 '밤고을 축제'가 특색 없는 지역 특산물 중심의 먹거리 축제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 대안으로 우리 고장의 읍성을 활용한 체험 중심의 역사 축제로 바꾸자는 대안 한 가지만을 얘기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방정혁은 축제 전문가인 배 교수에게 충분히 다른 대안을 물어볼 수 있다.

④ 확인: 구체적인 수치

김 사무국장은 이 축제가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다고만 언급할 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김 사무국장에게 그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

⑤ 확인: 근거 자료

김 사무국장은 먹거리 축제가 방문객의 1인당 소비 지출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이라고만 얘기할 뿐 근거 자료를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방정혁은 충분히 질문 가능하다.

3) 4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지역 주민 대표의 의견 위주로

교수, 지역 주민 대표, 축제 준비 위원장 등 각기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밤고을 축제'의 문제 해결

시의성은 토의 주제가 당시 사정에 알맞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최근에 끝난 '밤고을 축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사안을 토의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시의성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② 확인: 공공 사안, 가치

지역 축제 문제는 공공 사안이기 때문에 토의 주제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확인: 우리 고장의 지역 축제

주변에 있는 우리 고장의 행사이기 때문에 토의 주제로서의 접근성은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⑤ 확인: 의문문 형식으로 진술

토의 주제를 '우리 고장 축제'처럼 명사구로 끝을 맺기보다는 의문문 형식으로 진술하는 것이 토의 방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토의 주제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 3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1: 반문

반문이란 물음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되받아 묻는 것을 가리킨다. ㉠에서 이모는 선아의 말이 구체적이지 않아 그 내용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반문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확인 2: 상대가 한 말의 의도

이모는 선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대가 한 말의 의도를 자신이 제대로 파악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1: 우호적인 태도

이모는 '선아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시간을 낼 수 있지.'라고 하며 선아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확인 2: 대화 상황을 조성

이모는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느냐는 선아의 말에 '그래, 어쩐 일이지?'라고 물으며 대화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② 확인 1: 발언 내용 중 일부를 반복

이모는 '자신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선아의 발언 내용 중 일부를 반복하고 있다.

확인 2: 상대의 말에 대한 관심

이모는 선아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한 이유를 물어보면서 선아의 말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④ 확인 1: 상대의 말에 대한 공감

이모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라고 하며 선아의 말에 대해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확인 2: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

이모는 '그런데 혹시 그 친구들이 네게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니?'라고 물어보면서 선아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⑤ 확인 1: 상대가 건넨 말을 통해 판단

이모는 선아의 말을 모두 듣고 나서 '그 친구들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거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확인 2: 자신의 의견을 제시

이모는 자신이 판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만났던 친구들은 아직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준비가 덜 되었을 수 있어.'라고 하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4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1: 선아가 처한 문제 상황 확인

㉠에 대한 발언 이전에 이모는 '대개 친구를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음속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기는 쉽지 않은 법이란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모는, 선아가 성급한 자기 노출로 인해 친구 관계 자체가 손상되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확인 2: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

성급한 자기 노출로 인해 원만한 친구 관계 형성이 어려운 선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에는 지나친 자기 노출의 문제를 지적하고, 적절한 자기 노출에 대해 조언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것은 ㉣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1: 선아가 처한 문제 상황 확인

'상대방도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선아의 문제 상황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확인 2: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

문제 상황을 잘못 파악했으므로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적극적으로 네 속마음을 드러내 주어야 해.'라는 말은 선아가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확인 1: 선아가 처한 문제 상황 확인

‘네 이야기만 강요하는 태도’는 선아의 문제 상황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확인 2: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

문제 상황을 잘못 파악했으므로 ‘친구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말은 선아가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확인 1: 선아가 처한 문제 상황 확인

‘어떤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라는 말은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친구들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선아의 문제 상황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확인 2: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

(보기)에 따르면, 적절한 자기 노출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의사소통의 양적·질적 측면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으므로 ‘마음속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친구 관계가 돈독해질 것이라고 기대해선 안 돼.’라는 말은 선아가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확인 1: 선아가 처한 문제 상황 확인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해야’ 한다는 말은 선아의 문제 상황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확인 2: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

문제 상황을 잘못 파악했으므로 ‘내가 내 자신과 내 감정을 잘 이해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말은 선아가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다.

6) 3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II-3-가’의 내용을 고려하여

‘II-3-가’에서 인권 침해의 발생 원인으로 ‘ID 도용, 해킹 등을 통한 개인 정보의 유출’을 들고 있다. 그리고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유형으로 사생활 침해가 이에 해당되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III’의 제시 방법을 고려하여

‘III. 결론’에서 들어가야 할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고 있으므로 ‘I. 서론’에서도 적절한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② 확인: ‘SNS에서의 인권 침해’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1인 미디어는 블로그, SNS, UCC 등의 다양한 소셜 미디어 전반을 가리키며 인권 침해의 내용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중심 화제인 ‘SNS에서의 인권 침해’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확인: 상위 항목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상위 항목은 ‘SNS에서의 인권 침해 발생 원인’을 언급하고 있다. 개요에 제시된 내용은 SNS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결과와 관련된 것이므로 발생 원인에 해당하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의 무분별한 전파’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⑤ 확인: 상위 항목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상위 항목의 내용은 SNS에서의 인권 침해 예방 방안이고, 개요에 제시된 내용은 이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방 방안에 해당하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의 확립’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7) 1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확인: 급속히 퍼질 수 있는, 사실 여부를 파악

(보기)의 (가)의 신문 기사는 SNS가 급속히 퍼질 수 있는 속성이 있으므로 글을 올릴 때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는 SNS에서 허위 사실 유포자가 되지 않기 위한 예방책으로서 사실 여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은 이 두 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확인: SNS에 글을 쓰지 않도록

SNS에 글 자체를 올리지 말라는 내용은 (보기)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③ 확인: 정보 통신 윤리 교육을 이수

정보 통신 윤리 교육 이수 내용은 (보기)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④ 확인: 법규를 인지하여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보기)의 자료는 처벌을 피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글을 올릴 때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⑤ 확인: SNS에 그 정보를 올려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

정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SNS에 그 정보를 올려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일은 무책임하게 정보를 퍼뜨리는 일과 다르지 않다.

8) 5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후배들에게 당부하는 말

답사의 끝 부분에 후배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처음 부분에서 선생님과 후배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우선, 저희들을 위해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보내 주신 선생님들과 후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에서 감사함을 표하고 있다.

② 확인: 내 경험을 토대로, 배웠던 점

‘학교의 교육 활동 대부분이 ‘나’가 아닌 ‘우리’를 강조했고, 이를 통해 이기적이었던 제 자신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에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학교생활에서 배웠던 점을 드러내고 있다.

③ 확인: 사회생활에 대한 포부 언급

‘푸른 소나무처럼 그 어떤 시련도 이겨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생활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④ 확인: 비유법을 활용해서 표현

‘푸른 소나무처럼 그 어떤 시련도 이겨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 자신이 누군가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한 그루 푸른 소나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에서 비유법을 활용하고 있다.

9) 3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1: 일상적 사례

글쓴이는 ‘난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오늘도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네.’와 같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 ‘칭찬’이라는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ㄴ).

확인 2: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글쓴이는 부정적인 생각들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1분 칭찬하기’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ㄷ).

오답이 오답인 이유

ㄱ. 확인: 친숙한 대상에 비유

‘과제의 초고’에서 ‘칭찬’을 친숙한 대상에 비유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지 않다.

ㄴ. 확인: 분석적 방법

‘과제의 초고’에는 분석적 방법으로 ‘칭찬’의 특성을 설명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 3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1: 사동 표현

‘들려주다’는 ‘[... 에게 ... 을] 소리나 말을 듣게 해 주다.’의 의미이다. ㉠이 포함된 문장은 “1분 칭찬하기”란 ~ 자기 스스로에게 ~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다.’로 정리할 수 있으므로 ㉠은 적절한 표현이다.

확인 2: 고쳐쓰기의 적절성

‘들다’는 목적어만 필요로 하므로 ㉠을 ‘듣는’으로 고쳐 쓰면 ㉠이 포함된 문장이 어색해진다. 따라서 ‘들려주는’을 ‘듣는’으로 고쳐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1: 띄어쓰기

㉠은 ‘어느 틈에 벌써’라는 뜻의 부사 ‘어느새’의 띄어쓰기가 잘못된 단어이다.

확인 2: 고쳐쓰기의 적절성

‘어느 새’를 ‘어느새’로 고쳐 써야 한다.

② 확인 1: 문장의 연결 관계

㉠의 앞 문장에서는 ‘1분 칭찬하기’에 대해 언급했고, ㉡의 다음 문장에서는 ‘1분 칭찬하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확인 2: 고쳐쓰기의 적절성

그러므로 ㉡은 글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그래서 전문가들은 ‘1분 칭찬하기’를 권한다.’라는 문장과 순서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확인 1: 문장 성분 간의 호응

㉠이 포함된 문장의 주어는 ‘전문가들’인데, 주어인 ‘전문가들’과 서술어인

‘가져야 한다’의 호응이 자연스럽게 않다.

확인 2: 고쳐쓰기의 적절성

주어와 서술어가 자연스럽게 호응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가져야 한다’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로 고쳐 써야 한다.

⑤ 확인 1: 글의 흐름

㉔ 앞뒤에서는 상대방을 칭찬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㉔은 칭찬이 갖고 있는 위협성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글의 흐름에 어긋난다.

확인 2: 고쳐쓰기의 적절성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㉔을 삭제해야 한다.

11) 4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석류’는 [석뉴]로 발음

표준 발음법 제19항 [붙임]에 따라 ‘석류’가 [석뉴]로 바뀐 후 제18항에 따라 [성뉴]로 바뀌어 발음이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밤물’은 [밤물]로 발음

표준 발음법 제18항에 따라 받침 ‘ㅁ’은 ‘ㄱ’ 앞에서 [ㄱ]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밤물]로 발음되는 것이 맞다.

② 확인: ‘등록만’은 [등농만]으로 발음

우선, 표준 발음법 제19항에 따라 ‘등록만’은 [등농만]으로 발음된다. 그리고 제18항에 따라 [등농만]은 [등농만]으로 발음된다.

③ 확인: ‘침략’은 [침낙]으로 발음

표준 발음법 제19항에 따라 받침 ‘ㄹ’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침낙]으로 발음되는 것이 맞다.

⑤ 확인: ‘물난리’는 [물날리]로 발음

표준 발음법 제20항에 따라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된다. 따라서 [물날리]로 발음되는 것이 맞다.

12) 4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체언인 ‘편지’를 꾸미고

ㄹ의 밑줄 친 부분은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여 부사어가 성립된 경우로, 동사인 ‘보냈다’를 꾸미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부사가 부사어로 성립

ㄱ은 ‘아주’라는 부사가 그대로 문장 성분으로서 부사어가 되고 있다.

② 확인: 명사에 부사격 조사 ‘-로써’가 붙어

ㄴ의 ‘아버지로서’는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 부사어가 되는 경우이다.

③ 확인: 의존 명사 ‘체’에 부사격 조사 ‘-로’가 결합

ㄴ의 밑줄 친 부분은 의존 명사 ‘체’에 부사어의 성질을 띠게 만드는 부사격 조사 ‘-로’가 결합되어 부사어로 성립된 경우이다.

⑤ 확인: 용언의 어간 ‘꿈-’에 어미 ‘-게’가 붙어 부사어가 성립

ㄹ의 밑줄 친 부분은 형용사 ‘꿈다’의 활용형이 부사어로 성립된 경우이고, 이는 동사인 ‘피었다’를 꾸미고 있다.

13) 5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

문제의 탐구 과정에서 자료를 탐색한 결과 ‘-데’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전달할 때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직접 경험한 사실, 감탄

직접 경험한 사실을 말할 때는 ‘-데’가 쓰인다. 그리고 감탄하면서 말하는 태도라도 관련이 없다.

② 확인: 직접 경험한 사실, 평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말할 때는 ‘-데’가 쓰인다. 그리고 평가하듯이 말하고 있지 않다.

③ 확인: 청자의 반응,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냄

문제 탐구 과정의 자료에서 청자의 반응을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④ 확인: 막연한 의문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은 맞지만, 막연한 의문을 나타낼 때 쓰이지는 않는다.

14) 5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겠-’의 의미

‘따라가겠어’의 ‘-겠-’은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로서 철수를 ‘따라가’는 일에 대한 영희의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철수를 ‘따라가’는 일에 대한 영희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았-’의 의미

‘있었어’의 ‘-았-’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로서 ‘익다’라는 상황이 완료되고, 완료된 결과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② 확인: ‘-았-’의 의미

‘혼났다’의 ‘-았-’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이지만 여기서는 ‘내일’이라는 미래의 시점에 숙제를 하지 못해 ‘혼나’는 일이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③ 확인: ‘-았-’의 의미

‘왔어’의 ‘-았-’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로 말하는 시점인 발화 이전에 영희가 이미 ‘와’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④ 확인: ‘-겠-’의 의미

‘공부하겠지’의 ‘-겠-’은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이지만 여기서는 발화시 현재 민수가 중간고사를 준비한다고 ‘공부하고’ 있다는 추측을 나타내고 있다.

15) 1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확인: 불규칙 활용을 하기도 함

표제어인 ‘나누다’의 옆에 있는 [나누어(나눠), 나누니]에서 ‘(나눠)’는 ‘나누어’가 축약된 형태이다. 따라서 ‘(나눠)’는 때에 따라서 ‘나누다’가 불규칙 활용을 하기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확인: ‘나누다’의 유의어

‘분할하다’는 ‘나누어 쪼개다.’라는 의미의 단어이다. 따라서 ‘나누다’가 (1)의 ㉠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 ‘나누다’ 대신 ‘분할하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확인: 용례의 이해

‘사업장의 각 부서에 작업량을 나눌 때는 인부들의 숙련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나누다’의 통사 구조와 의미를 다 갖추고 있으므로 용례로 추가할 수 있다.

④ 확인: 통사 정보의 이해

국어사전에 [] 표시는 일반적으로 해당 단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을 나타낸다. (1) [... 을 ... 으로], (2) [... 을 ... 에/에게]는 ‘나누다’가 주어와 목적어,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⑤ 확인: 의미의 분화 이해

‘나누다’ (3)의 ㉠, ㉡, ㉢은 동일한 통사 구조를 띠고 있지만 의미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나누다’ (3)의 ㉠, ㉡, ㉢은 [(... 과)... 을]의 통사 구조를 띠는 ‘나누다’가 의미상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16) 2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확인: 끊어 적기 표기

‘일그니’로 표기한 것은 끊어 적기 표기를 보여 주고 있는 사례가 아니라 이어 적기 표기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모음자 사용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모음자인 ‘(아래 아)’가 표기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확인: 띄어쓰기가 오늘날과 다른 점

현대 국어에서는 ‘쓴 ∨ 것보다’처럼 어절 단위의 띄어쓰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보기)에서는 이를 ‘쓴것보다’와 같이 붙여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확인: 초성에 ‘스’로 시작하는 합용 병서 표기

현대 국어에서는 ‘스’계 합용 병서 표기는 쓰이고 있지 않다.

⑤ 확인: 받침으로 ‘ㄷ’이 와야 할 자리

현대 국어로 표기하면 ‘듣고’이기 때문에 받침에 ‘ㄷ’이 와야 하지만, (보기)에서는 ‘듣고’로 표기하여 받침에 ‘스’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2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셋째 문단의 내용을 보면 고소독자는 민간 보험에 비해 수익률이 낮을 수 있고, 상대적 손실을 입게 된다고 했으므로 균일한 금전적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은 첫째 문단에, ③은 둘째 문단에, ④는 마지막 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18) 3

[출제의도] 개념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넷째 문단에 민간 보험사는, 회사들의 연쇄부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실직과 같은 상호 의존적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단정적으로 고용보험상품을 제공하려 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오답풀이] ①의 실직은 사회의 4대 전형적 위험에 해당하고, ②의 경우도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치료가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의 실업은 넷째 문단에 언급한 것처럼 한 회사가 부도나면 그와 관련된 회사에 영향을 미쳐 연쇄적 부도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 역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상호 의존적인 것이다. ⑤는 사회 안전망의 마련에 의한 생계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9) 3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사회보험은 선택 가입이 아니라 의무 가입이다. 따라서 <보기> 법의 취지는 강제적 방법을 동원해서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는 것이지 민간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보기> 법의 적용대상자는 고의·고액·상습 체납자이다. ①은 고액에, ④는 고의·상습에, ⑤는 고의에 관련된 진술이다. ②는 강제적 방법을 동원하여 사회보험의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20) 5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의 왼쪽 그림은 두 쌍의 연인을 보여주지만, 오른쪽 그림은 등을 돌린 두 남녀를 보여준다. 사진이 현실의 전체 중의 일부분을 카메라로 포착하여 제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오답풀이] ④번의 ‘의미는 없다. 오로지 사물만이 존재할 뿐이다.’는 그림의 내용을 표면적으로 보면 사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진술은 사진가의 의도가 드러나기 전의 상태를 드러내는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21) 3

[출제의도] 핵심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관찰의 눈’을, ㉡은 ‘소통의 눈’을 사진에 적용한 것이다.

[오답풀이] ㉠은 순간을 포착하는 시간의 눈을, ㉡은 할머니와 손자라는 대상을 통하여 물리적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두 존재의 대비를 통하여 대상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존재의 눈으로 사진을 해석한 것으로 봐야 한다.

22) 3

[출제의도] 글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첫째 문단에서 노화와 암 문제가 텔로미어·텔로머라아제와 관계가 있

음을 밝히고, 둘째 문단에서 DNA의 구조와 복제 과정을 설명했다. 셋째 문단에서는 복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넷째 문단에서는 그 해결책인 텔로미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다섯째 문단에서는 텔로미어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여섯째 문단에서는 텔로머라아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텔로미어와 텔로머라아제가 노화 방지와 암세포 치료의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글의 중심 화제는 텔로미어와 텔로머라아제의 소개라고 할 수 있고,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화와 암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①보다는 ③이 더 적절하다고 보아야 한다.

23) 3

[출제의도] 핵심 화제에 대한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첫째 문단을 보면, ‘DNA의 양끝 부분인 텔로미어’라고 했고, 여섯째 문단을 보면, ‘텔로머라아제는 텔로미어를 합성한 뒤 DNA 끝에 붙어서 텔로미어 전체의 길이를 늘린다.’고 했다. 넷째 문단을 보면, ‘텔로미어가 ~정보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했고, 다섯째 문단을 보면, ‘세포분열의 횟수는 ~텔로미어의 길이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고,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리는 것은 텔로머라아제이므로, 결국 텔로머라아제는 세포분열의 횟수를 늘려 준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문단을 보면, ‘텔로미어도 ~길이가 짧아진다.’고 했다. 따라서, ‘ㄱ, ㄷ, ㄴ’은 텔로미어에 대한 진술이고, ‘ㄹ, ㄷ’은 텔로머라아제에 대한 진술이다. ‘ㄷ’의 경우는 텔로미어에 대한 진술이지만, 텔로머라아제가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려 주므로, 유전 정보의 손실을 예방하는 데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24) 4

[출제의도]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주어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작가가 설정한 ‘벤자민’의 특징은 정상인과 반대로, 살아가면서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어진다 것이다. 노인의 모습으로 태어나 점점 짧아지고 어려워지는 것이다. ‘테이지’의 할머니는 임신이 불가능한 노인이므로 전구세포의 기능이 거의 정지되었다고 추리할 수 있다. 6살 ‘테이지’는 어린이이고 당시의 ‘벤자민’은 노인의 모습일 것이므로 ‘테이지’의 텔로미어 길이가 더 길다고 보아야 한다.

25) 5

[출제의도] ‘공간’을 ‘장소’로 만드는 것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물리적인 ‘공간’에 인간의 감정이 이입되면 상징적인 ‘장소’로 바뀌게 되며, 그 장소는 안정감·정체성을 갖게 한다. 따라서 새로운 곳에 옛 지명을 붙인 마사이족과 유럽인의 행위는 향수병을 달래고 안정감을 느끼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답풀이] ⑤ 문제에서 ‘마사이 족과 유럽인들’을 함께 묶어서 물었다. 마사이 족의 행위는 자신들을 찾아낸 이들에게 저항감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유럽인의 행위는 저항감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6) 2

[출제의도] ‘공간’과 ‘장소’의 개념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공간’이 보편적·일반적·객관적인 곳이라면 ‘장소’는 개별적·개성적·주관적인 곳이다. 누군가에게 특별한 곳이면 어느 곳이든 장소가 될 수 있다. <보기>를 보면 원주민들은 울루루가 자신들에게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등반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원주민들에게 울루루는 ‘장소’이다.

[오답풀이] ① 울루루에 가 보고 싶은 사람은 이미 울루루에 의미를 부여한 사람이다. ③ 우연히 ‘도착’한 원주민이 울루루에 의미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고, 울루루가 우연히 도착한 원주민에게 정체성을 갖게 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울루루는 원주민에게는 ‘공간’이다. ④ 기억이 남아 어떤 감정을 갖게 되었으므로 ‘장소’이다. 어떤 공간이 인간의 기억에 남을 때 반드시 좋은 기억으로만 남아야 ‘장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⑤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는 기관에게는 단지 관리해야 할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공간’이다.

27) 1

[출제의도] 한자어를 우리말로 적절하게 바꿀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의 '측량하다'는 '물건의 높이, 길이, 넓이, 방향 따위를 재다.'의 뜻이다.

28) 5

[출제의도] 글의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열전현상은 이미 1800년대에 발견되었으나 효율이 낮아 별로 이용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열전반도체의 개발로 열전현상의 효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면서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열전현상이 열전반도체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㉓는 적절하지 않다.

29) 1

[출제의도] 글의 핵심 원리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열전반도체의 ㉑와 ㉒에 열을 가하면 이 부근의 전자와 정공은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된다. 그러면 전자는 온도가 낮은 ㉓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전류는 전자 이동의 반대 방향인 '㉑→㉒→㉓→㉔'로 흐르게 된다. 따라서 전자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㉑→㉒→㉓→㉔'는 전류의 이동 방향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㉑ 정공은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이동한다. 따라서 ㉓에 열을 가하게 되면, ㉒ 부근에 있는 정공은 저온부인 ㉔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㉑ 열전 발전으로 얻는 전류는 두 부분의 온도차와 비례하므로, ㉑·㉒의 온도와 ㉑·㉔의 온도차의 차가 클수록 발생하는 전류도 커진다. ㉒ 열을 가하면 전자는 그전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된다. 따라서 ㉓에 열을 가하면 그 부근에 있는 전자가 ㉑ 부근에 있는 전자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된다. ㉓ 정공도 ㉒와 같은 이유로, ㉒ 부근에 있는 정공이 ㉒ 부근에 있는 정공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된다.

30) 5

[출제의도] 핵심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펠트에 효과는 전류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키거나 흡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전자 온도계는 체온인 열을 전류로 바꾸어 온도로 표시해 주는 장치이다. 따라서 전자 온도계는 열을 이용하여 전류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므로, 펠트에 효과가 아니라 계백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31) 3

[출제의도] 시의 내용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①은 시의 상황으로 '문을 열자 선뜻! / 먼 산이 이마에 차라.'라는 구절을 통해 문을 열어 보니 먼 산에 갑자기 눈이 내린 것을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우수 절 들어 / 바로 초하루 아침'이라는 구절에서 이미 계절이 봄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에 제시된 '이미 봄기운이 느껴진다.'는 내용은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늘함과 빛난 이마받이'는 춘설을 보고 느낀 감각으로 봄기운과는 거리가 멀다. ④ '미나리 파릇한 새 순 돌고 / 웃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에서 봄을 맞아 자연이 생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춘설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어 하는 시적 화자의 감정은 마지막 연에 드러난다.

32) 4

[출제의도] 다양한 관점으로 시를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시는 전반부에서 '없다', '없다' 등의 부정적 서술어를 반복하여 외면적으로 '새'가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는 후반부에서 내일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거센 바람을 거슬러 가는 존재로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 이는 제목의 '출가'와 관련지어 생각할 때, 세속적인 가치에 연연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가치관이 투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대상의 의미가 점층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는 않으며, '자취', '체중', '자리', '체취'는 점층적인 관계도 아니다.

33) 3

[출제의도] 상징적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①은 봄기운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자연물의 의미이며, ②는 자연물이라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이나 고난 등 새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34) 3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작품은 어촌을 배경으로 한 가족의 삶을 그린 작품이다. 위 글의 전반부에서 보여주는 인물들의 행위가 '처'와 주변 인물의 대사와 행위를 통해 왜 그런 행위와 대사로 드러났는지 밝혀지고 있다. 이를 통해 한 가족의 가족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오답풀이] ① 위 글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행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② 위 글에서 공간 이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한 인물(처)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사실이다. ④ 인물간의 갈등은 부각되지 않았다. 따라서 갈등의 해결과 위 글의 흐름은 무관하다. ⑤ 시간적 배경은 새벽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간적 배경이 역사적 사건과 연결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35) 1

[출제의도] 장면을 통해 작품 내용을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석이'는 어머니의 행위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가 할 말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 이로 보아 어머니의 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집안의 살림을 챙기고 있음은 위 글의 전반부를 통해 알 수 있으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집안 경제는 석이의 행위와 관련 있다. ③ 아버지가 식구들을 박대하고 있는 것과 자신이 불구가 된 경험은 인과적으로 무관하다. ④ 가족의 죽음을 경험한 어머니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복조'의 무사 귀환이다. ⑤ 형(큰아들)의 죽음이 확인된 날의 상황을 근거로 죽음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사람은 '처'이다.

36) 4

[출제의도] 대사의 특징과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어머니는 '복실'과 '석이'의 말에 개의치 않고 지난 과거를 회상하고 있을 뿐이다. 과거 회상의 내용은 큰 아들의 죽음을 확인하던 날의 상황이다. 이를 통해 현재 상황을 불안해하면서 넘어 나간 내면의 의식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상상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고 있다. ② 다른 인물과 소통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영동한 반응과는 거리가 있으며 긴장감의 이완과는 거리가 있다. ③ 시간차를 두고 말한 것은 상대방을 신경쓰지 않는 상태를 보여준다. ⑤ 다른 인물의 말을 듣고 있지 않고 있으나 상대방에 대꾸하지 않으므로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

37) 1

[출제의도] 내용과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①에서 어머니의 행위는 아들 '복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의 흐름으로 보아 복조가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
[오답풀이] ② '배 한 척'은 '복조'의 귀환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복조' 소식을 궁금해 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 ③ '개 짖는 소리'는 뒷부분의 '황둥개 짖는 것과 연결된다. ④ 조개잡이를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개펄투성'이로 돌아온다.'는 지문으로 드러나므로 의상을 통해 이 점이 명확하게 소품으로 드러나야 한다. ⑤ 어머니의 현재 상황과 바로 위의 어머니 대사를 보면 상대방(어머니)이 현재 느끼는 불안감에 대한 부정임을 알 수 있다.

38) 1

[출제의도] 작중 상황을 적절한 한자성어로 나타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장정이 폐제가 유배된 황토로 찾아간 것은 폐제의 복위를 위한 군사력을 모았음을 보고하고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을 뜻하는 면중복배(面從腹背)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견마지(犬馬之勞) : 개나 말 정도의 하찮은 힘이라는 뜻으로, 뒷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신의 노력을 낮추어 이르는 말. ㉓ 권토중래(捲土重來) : 땅을 털어 일으킬 것 같은 기세로 다시 온다는 뜻으로, 한 번 실패하였으나 힘을 회복하여 다시 쳐들어움을 이르는 말. ㉔ 절치부심(切齒腐心) :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㉕ 사필귀정(事必歸正) :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

는 분위기이지만 ㉔는 그렇지 않다. ㉔ ㉔에서 황만근이 술을 좋아하는 정도만 알 수 있다. ㉕ 시간상으로 ㉔보다 ㉔가 먼저이다.

39) 1

[출제의도] 장면 간의 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는 폐제를 복위시키기 위한 계획의 최종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B]의 '남방 각진을 두루 돌아 약속한 말씀'에 [A]도 포함되어야 한다.

[오답풀이] ㉒ [B]에서 폐제가 '승상이 도망한다 하며 다행하여 혹 찾아올까 고대하던 말씀'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장경이 유배지에서 도망하였다는 소식은 들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으나, [A]의 대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폐제의 복위 계획 등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㉔ [C]는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난 뒤, 폐제가 장경의 공을 인정하여 치하한 것이므로, [A]와 [B]에 선행하는 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C]가 [A]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40) 1

[출제의도] 주요 장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장경이 군사를 일으켜 건성에게 대적하는 장면으로, 부하 장수들의 활약을 중심으로 빠르고 긴박하게 진행하여 건성군에게 옥새를 건네 받아 승리하는 장면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오답풀이] ㉒ [가]에서는 주인공 장경이 아닌, 부하장수들의 활약이 부각되어 있다. ㉔ 성(城)이 배경임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는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1) ㉒

이 작품은 '~'곡은 어딴디오 '~에 ~다'와 '~'곡은 어딴디오 '~이 ~다'처럼 구조가 유사한 자문자답의 문장 형식을 반복하여 작품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42) ㉓

화자는 <제4수>에서 '산조'와 '반송'이 어우러진 풍경을 드러내고 있다. 더운 여름, 맑은 바람이 부는 자연의 모습을 포착한 것이다. <제4수>에는 이러한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자연의 모습을 통해 내적 갈등을 극복하려는 의지나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43) 3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인물들이 사용하는 사투리가 농촌이라는 배경의 현장감을 잘 드러낸다.

[오답풀이] ㉑ 인물의 행위가 과장된 부분은 없다. ㉒ 황만근이 실종된 사건을 전후로 일어난 마을 회의의 내용만 나타나고 극적인 반전은 드러나지 않는다. ㉔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고 섬세한 인물 묘사는 보이지 않는다. ㉕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사건이 서술되고 있으며 서술 시점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44) 5

[출제의도] 인물 간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장은 민씨가 토박이 마을 사람이 아님을 내세워 민씨를 공격하고 있다.

[오답풀이] ㉑ 이장은 경운기를 끌고 쉼터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투쟁방침'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㉒ 지도자인 이장부터 술선수벌해야한다는 말도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㉓ 이장은 '인원 점검'과 '다른 이장들과의 의논'을 핑계로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내세우고 있다. ㉔ 이장이 자신을 '반동가리'라고 말하자 이에 민씨는 분노하고 있다.

45) 3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황만근이 경운기를 타고 농민쉼터대회에 나갔다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㉔와 ㉕의 회의를 통해 알 수 있다.

[오답풀이] ㉑ ㉒는 ㉔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㉒ ㉔에는 민씨와 이장이 갈등하